

## 『조선동화대집』에 나타난 <외쪽의 꾀>의 대비적 고찰\*

- <자글대 이야기>와 <어복손전>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

신 원 기\*\*

### 차 례

- |   |   |
|---|---|
| 1. 들머리에                                 | 4. <외쪽의 꾀>,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의 구성 요소 비교         |
| 2. <외쪽의 꾀>의 전개 양상과 구성 요소                | 1) 인물   |
| 1) 전개 양상                                | 2) 사건   |
| 2) 인물                                   | 3) 배경   |
| 3) 사건                                   | 5. <외쪽의 꾀>,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의 고찰에 나타난 서사문학적 의의 |
| 4) 배경                                   | 6. 맺으면서   |
| 3. <외쪽의 꾀>,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의 전개 양상 비교 |   |

\* 본고는 2018 한국문화회 상반기 학술대회(2018년 6월 16일,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발표한 원고를 보완한 것임.

\*\* 동천고 교사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조선동화대집』(1926년)의 <외쪽의 피>를 중심으로 전·후 시기의 ‘피쟁이 하인’ 이야기-『신단공안(神斷公案)』(1906년)의 <어복손전(魚福孫傳)>, 『조선전래동화집(朝鮮傳來童話集)』(1940년)의 <자글대 이야기>를 대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었다.

<외쪽의 피>의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았는데, <자글대 이야기>도 동일한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 I.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다.
- II. 하인이 주인을 속이다.
- III.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다.
- IV.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다.
- V. 하인이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딸과 살다.

<어복손전>은 I~IV까지의 전개 양상은 ‘문제 제기-문제 해결’ 양식의 비슷한 전개를 보였지만, 결말 부분이 ‘V. 하인이 주인과 딸을 죽이지만, 죄상이 밝혀져 자신도 처단되다.’로 나타나 두 이야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결말 부분이 앞의 두 이야기와 다른 이유는 주인공의 악행, 악인의 파멸을 바라는 독자의 기대 지평, 기존 가치 유지를 바라는 작가 의식 등이었다.

인물 형상을 살핀 결과,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달랐지만, 주인공(하인), 적대자(양반), 조력자, 희생자 등으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는 세 편의 이야기를 특정한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방증이 되었다. 아울러 ‘자글대, 양글장글대, 왕글장글대’ 등의 명칭이, ‘뭔가를 속이면서 누군가를 성가시게 하는 피쟁이’를 뜻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배경을 살핀 결과, 세 이야기 모두 변증법적 공간 전개를 통해, 신분

질서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마을 안-마을 밖-마을 안’으로 공간이 전개되면서, 그 의미는 ‘기존 질서의 유지-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대립-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세 편 이야기의 전개 양상과 인물, 사건, 배경을 대비적으로 살핀 결과, 담론 방식에 따른 화자의 기능 다양화, 윤리적 가치 변화에 따른 주제의 변화, 차연(差延)의 실현과 해석의 다양성 등을 서사문학적 의의로 들 수 있었다.

주제어 : <외쪽의 피>, <어복손전(魚福孫傳)>, <자글대 이야기>, 변증법적 공간 전개, 화자의 다양화, 주제의 변화, 차연(差延)의 실현

## 1. 들머리에

『조선동화대집(朝鮮童話大集)』에 실린 <외쪽의 피>는 이른바 ‘피쟁이 하인’ 유형의 이야기이다. ‘피쟁이 하인’ 유형의 이야기는, 주인에게 학대 받는 하인이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의 생존을 이어간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하인은 주인을 골탕 먹이기도 하고, 주인에게 저항하기도 한다. 이야기의 줄거리만 따진다면, 이 이야기는 트릭스터담으로 볼 수도 있고,<sup>1)</sup> 자신의 신분적 자유를 위해 저항하는 하인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sup>2)</sup>

이러한 ‘피쟁이 하인’ 유형의 이야기는 오랜 구비 전승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각편이 거의 50~60편에 달하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3)</sup> 흥미 있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이 구비 전

1)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9쪽.

2) 정준식, 『‘피쟁이 하인 설화’의 형성과정과 전승양상』, 『문화콘텐츠연구』 제11집,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2005, 422쪽.

승이 세 편의 활자화된 기록문학으로 출현한다는 것이다. 『신단공안(神斷公案)』(1906년)의 <어복손전(魚福孫傳)><sup>4)</sup>, 『조선동화대집』(1926년)의 <외쪽의 피>, 『조선전래동화집(朝鮮傳來童話集)』(1940년)의 <자글대 이야기>가 그것이다.<sup>5)</sup> 30여년의 시간 간극이 있지만, 세 이야기 모두 ‘피쟁이 하인’ 유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조선동화대집』의 <외쪽의 피>를 중심으로 전·후 시기의 ‘피쟁이 하인’ 이야기를 살피고자 한다. 이 세 편의 이야기가 비슷한 유형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작품 구성상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사문학적 의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외쪽의 피>의 전개 양상과 구성 요소를 살필 것이다. 어떤 서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서사 구조를 이루는 인물, 사건, 배경은 어떠한지를 알아볼 것이다. 둘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어복손전>과 <자글대 이야기>를 대비적으로 살필 것이다. 주로 각 이야기의 전개 양상과 구성 요소를 비교하여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셋째, 이러한 고찰의 결과가 의미하는 서사문학적 의의를 이야기(story)와 담론(discourse)의 차원에서 살필 것이다. 서사의 ‘무엇’ 또는 내용적 측면이 ‘이야기’이고, 서사의 ‘어떻게’ 또는 형식적 측면이 ‘담론’이므로,<sup>6)</sup> 일정한 서사 유형이 다양한 각편으로 나타났다면, 그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서사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고찰을 통해, 구비 전승의 기록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

3) 신연우, 『‘상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한국민속학』 제37집, 한국민속학회, 2003, 111-113쪽 참조.

4) 原題는 <癡生員驅家葬龍宮 孽奴兒倚樓驚惡夢>이지만 정환국이 <魚福孫傳>이라 칭한 이후에, 학계에서는 계속 이 제목을 사용함. 정환국, 『『神斷公案』 제7화 <魚福孫傳>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2-3쪽 참조.

5) 저자가 확실하고 출판물로 발행되었기에, 구연의 체록 보다는 기록문학으로 보아야 한다.

6) ① S. 채트먼 지음,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고려원, 1991, 23쪽. ②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103쪽.

지 특징을 추측할 수 있고, 일정한 유형의 이야기가 통시적으로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2. <외쪽의 피>의 전개 양상과 구성 요소

### 1) 전개 양상

<외쪽의 피>의 전개 양상을 살피기 위해,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sup>7)</sup>

1. 주인 양반은 외쪽이를 학대하고, 외쪽이는 불불 떨며 지내다.
2. 과거를 보려고 서울로 가던 주인 양반이 밥을 사 주지 않자, 외쪽이는 주인의 말을 팔아 밥을 사먹다.
3. 경성에 도착한 주인 양반이 팔죽을 사오라고 하자, 외쪽이는 콧물을 죽그릇에 빠뜨렸다고 속여 자기가 먹다.
4. 여러 가지로 화가 난 양반이 외쪽의 등에 외쪽을 죽이라는 글을 써서 집으로 내려가게 하다.
5. 집으로 내려가던 외쪽이가 콩가루 항아리를 이용해 꼴을 얻다.
6. 외쪽은 꿀떡을 서당 학동에게 주며, 자신을 죽이라는 글을 사위 삼으라는 내용으로 바꾸다.
7. 양반의 안부인은 외쪽의 등에 있는 글을 보고 망설이다.
8. 집으로 온 주인 양반은 외쪽을 강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외쪽이를 상자에 넣어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아 두다.
9. 외쪽은 안질 앓는 할멈을 속여 자기 대신 죽게 하다.
10. 외쪽은 얼마 후에 주인 양반을 찾아가, 자신이 용왕의 사위가 되었다

7) 분석 텍스트는 신원기, 『조선동화대집과 설화교육』, 보고서, 2017, 297-305쪽 소재 <외쪽의 피>로 한다.

고 하며, 주인도 용궁에 가면 많은 보패를 얻는다고 하다.

11. 외쪽의 피에 빠져 주인 일가는 익사하고, 외쪽은 주인의 딸과 부부가 된다.

<외쪽의 피>는 주인에게 학대받던 하인 외쪽이가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주인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간단히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 I.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다.
- II. 하인이 주인을 속이다.
- III.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다.
- IV.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다.
- V. 하인이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딸과 살다.

각 항목은 인과 관계를 이루고 있다. 주인이 하인을 학대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하인은 주인을 속이게 된다. I이 원인이 되어, II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하인이 주인을 속인 것이 원인이 되어, 주인은 하인을 죽이려고 한다. II가 원인이 되어, III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하인은 죽을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III이 원인이 되어, IV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하인은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딸과 살게 된다. IV가 원인이 되어, V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사건 전개가 인과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서사의 5단 구성을 적용시켜도 된다. 서사의 5단 구성은 일반적으로 발단(사건의 실마리 제시)-전개(갈등과 분규)-위기(극적인 反轉)-절정(갈등의 최고조)-결말(사건의 해결)로 나누어진다.<sup>8)</sup> <외쪽의 피> 이야기에서 5단 구성은 다음과

8) 구인환 외, 『문학개론』, 삼영사, 2002, 259-261쪽.

같이 나눌 수 있다. I.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다.(발단)-II. 하인이 주인을 속이다.(전개)-III.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다.(위기)-IV.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다.(절정)-V. 하인이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딸과 살다.(결말)

이 5단 구성은 더 간단히 하면 설화 구조에서 흔히 언급되는 ‘문제 제기-문제 해결’의 양식,<sup>9)</sup> 또는 ‘결핍-결핍의 해소’ 양식<sup>10)</sup>이라고 할 수도 있다. I은 문제 제기 또는 결핍 단계로 볼 수 있다.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는 문제 상황이고, 하인은 인간적인 대우가 결핍된 상태이다. II는 I의 문제 또는 결핍이 나름대로 해소된 상황이다. 하인은 자신이 받은 학대를 주인을 속임으로써 해결하거나 해소하고 있다. III은 다시 제기된 문제이다. I의 문제보다 훨씬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IV와 V는 III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문제 상황은 점층적으로 심각해지고, 해결 상황도 그에 맞게 점층적으로 맞서게 된다. 그래서 V는 III의 해결이면서 I의 해결이 되기도 한다. 이야기 서두에 제기된 ‘주인의 학대’에 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외쪽의 피>는 ‘문제 제기 - 문제 해결’의 점층적 양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인물

<외쪽의 피>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주인, 하인, 하인의 편지를 고쳐 주는 학동, 하인 대신 죽는 할멈, 하인과 혼인하는 주인의 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주인은 ‘주인 양반’으로 등장한다. 신분이나 경제력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시되지 않고, 그냥 ‘주인 양반’으로만 등장한다. 단 성격은 ‘하인 부리기를 우마와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인 외쪽이를 학대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하인 외쪽이를 주인공으로 본다면 주인 양반은 적대자

9) 곽진석, 『韓國民俗文學形態論』, 월인, 2000, 102쪽.

10) 김승찬 외, 『한국구비문학론』, 새문사, 2003, 76-77쪽.

로 기능한다.

하인은 ‘외쪽이’로 이 작품의 주인공이다. 주인의 학대에 공연히 죄 지은 것처럼 불불 떠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는 가장된 성격인 것 같다. 사건 전개 과정에서 하인 외쪽이는 주인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인물로 서술되지 않는다. 주인을 골탕 먹이기도 하고,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는 하인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하인 외쪽이를 죽이라는 편지를, 주인 양반의 딸과 결혼시키라는 내용으로 바꾸어주는 인물로 ‘서당 학동’이 등장한다. 서당은 지식을 상징하고, 학동은 순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었다면, 이런 편지 내용을 함부로 고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당 학동’은 외쪽이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기능한다.

뮈인 채 상자에 갇힌 외쪽이를 대신해서 죽는 인물로 ‘안질 앓는 잔질개 할멈’이 등장한다. ‘안질 앓는 잔질개 할멈’은 건강과 젊음에서 소외된 존재이다. 눈은 오장의 정기가 모이는 곳으로 흔히 마음의 창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리고 인식과 감각의 시작이기도 하다. 우리의 오감 중에서 시각은 감각과 인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눈 또는 시각은 인식의 시작점이어서 생명을 상징하는데, 눈을 감는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sup>11)</sup> ‘잔질개 할멈’은 할멈이기도 하고 눈병을 앓고 있기에 생명에서 멀어진, 죽음에 가까운 인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외쪽이는 잔질개 할멈의 희생을 발판으로 자신의 희생 의지를 실현시킨다. 따라서 잔질개 할멈은 외쪽이의 의지 실현을 돕는 희생자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주인 양반의 딸은 결국에는 외쪽이와 부부가 된다. 외쪽이의 학대라는 문제는 주인의 제거로 깨끗하게 해결된다. 더구나 주인 양반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외쪽이는 학대라는 문제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 주인 양반의 딸 역시 외쪽이의 의지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라고

11)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176쪽.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외쪽의 피>의 인물은 주인공(외쪽이), 적대자(주인 양반), 조력자(서당 학동, 주인 양반의 딸), 희생자(잔질개 할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3) 사건

서사에서는 인물의 행위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고 사건과 사건의 결합에 의해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발전한다.<sup>12)</sup> 그래서 사건은 이야기 전개와 구성의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외쪽의 피>의 사건은 전개 양상에서 밝힌 5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 I.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다.

주인 양반은 하인 외쪽이를 우마(牛馬)와 같이 부른다. 그리고 함께 길을 떠났을 때, 자기만 점심을 먹고, 외쪽이에게는 밥을 사 주지 않는다. 주인 양반이 하인 외쪽이에게 부과하는 학대는 과도한 노동과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이다.

#### II. 하인이 주인을 속이다.

주인이 하인 외쪽이를 학대하고 밥마저 주지 않게 되자, 외쪽이는 주인을 속여 말을 팔아버린다. 그리고 그 돈으로 술과 밥을 사 먹는다. 물론 주인에게는, 고삐를 쥐고 잠든 동안에 도적놈이 말고삐를 자르고 끌고 갔다고 거짓말을 한다.

주인이 경성에 도착하여 팔죽을 사 오라고 시키니, 외쪽이는 팔죽을 사 들고 들어오며 눈물을 흘리고 훌쩍훌쩍 울면서 들어온다. 주인이 곡절을 물어보니, 콧물이 죽그릇에 빠져 민망하여 그런다고 한다. 주인은 화를 내며 팔죽을 외쪽이에게 준다. 주인은 하인에게 속는다.

12) 권영민, 『풍자 우화 그리고 계몽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17쪽.

III.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다.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2회에 걸쳐 시행된다. 주인은 과거에 낙제하고, 외쪽이를 먼저 내려 보낸다. 그러면서 외쪽이의 등에다, 그를 상자에 넣어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글을 쓴다. 또한 얼마 후에 집으로 내려온 주인은 외쪽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상자에 넣어 강물에 던지려고 한다.

IV.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났다.

글을 모르는 외쪽이는 자기 등에 쓰인 글의 내용을 모르고 내려가다가, 서당 학동들을 만난다. 외쪽이는 서당 학동에게 꿀떡을 주며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을 사위 삼으라는 내용으로 바꾼다.

집으로 내려 온 주인은 외쪽이를 상자에 넣어 강물에 던져 죽이려고 한다. 외쪽이가 상자 속에 갇혔을 때, 마침 지나가던 안질 앓는 잔질개 할멈을 속여 자기 대신 상자에 들어가게 한다. 잔질개 할멈은 외쪽이 대신 죽고, 외쪽이는 살아나게 된다.

V. 하인이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딸과 살다.

다시 살아난 외쪽이는 주인을 찾아가서, 수궁에 들어가서 자신이 용왕의 사위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수궁에 가면 많은 보패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인을 속여, 주인 일가를 강물에 빠뜨린다. 그리고 주인 딸만 살려서 부부가 된다.

4) 배경

배경은 이야기의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공간적인 정황인데,<sup>13)</sup> 인물과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세계

13) 제럴드 프린스, 이기우·김용재 옮김, 『서사론사전』, 민지사, 1992, 239쪽.

일 수도 있다. 이야기 시공간은 단지 물리적 객체가 아닌 인간적 의미로 채색된 삶의 터전인 것이다.<sup>14)</sup> 시간은 형이상학적 자질이고, 공간은 가시적이며 물리적인 자질이다.<sup>15)</sup> 이때 ‘공간’이란 인물과 사건이 존재하는 장소와 그 장소를 구성하는 물체들을 모두 가리킨다.<sup>16)</sup> 즉, 배경은 그 행동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장소나 역사적 시간이나,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sup>17)</sup> 이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회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외쪽의 피>에서 시간적 배경은 ‘어느 날’로 나타나고, 공간적 배경은 ‘어느 시골 한 양반의 집’, ‘장(場)’, ‘서울’, ‘경성(京城)’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구체적인 시공간이라기보다는 막연한 시공간이다. ‘막연한 시공간’은 민담의 특성이기도 하다.<sup>18)</sup> 이렇게 본다면 <외쪽의 피>는 민담적 시공간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배경은 19세기 이후에 인물의 행위의 사실성을 위해 받아들여졌기에,<sup>19)</sup> 그 이전에 나타난 서사물에서는 배경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쪽의 피>에서는, 막연한 시공간 속에서도 이야기 전개와 결말에 의미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외쪽의 피>는 서사 진행의 중심이 ‘하인과 양반의 갈등과 대립’이다. 시골 또는 마을 안에서는 ‘양반의 승리-하인의 패배’가 서술된다. 주인 양반은 외쪽이를 우마처럼 부리고 학대하고, 외쪽이는 이 학대에 불불 떨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마을 양반 집으로 돌아와서는 묶여진 상태로 상자에 넣어져 강물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다. 한마디로 시골 또는 마을 안에서, 외쪽이는 양반에게 패배할 뿐이다. ‘마을 안’은 양반의 신분적 권위가 통하는 기존질서가 유지되는 공간이다.

14)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69쪽.

15)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168쪽.

16)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5, 171쪽.

17) M.H. 아브람스, 최상규 옮김, 『문학용어사전』, 보성출판사, 1998, 273쪽.

18)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5, 18쪽.

19)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 사전』, 민음사, 2001, 119쪽.

하지만 도시 또는 마을 바깥에서는 ‘하인과 양반의 대결’이 서술된다. 서울 가는 도중의 어느 장터에서 주인이 자신의 밥을 사 주지 않자, 주인의 말을 팔아 식사를 해결한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해서는 주인이 팔죽 심부름을 시키자, 팔죽에 콧물이 빠졌다고 주인을 속여 자신이 팔죽을 먹는다. 도시 또는 마을 바깥에서, 하인 외쪽이는 양반의 권위에 끊임 없이 도전한다. ‘마을 밖’은 양반이라는 기존 질서와 하인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질서가 대립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하인과 양반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마을과 도시의 경계인 강변에서 승부가 판가름 난다. 외쪽이는 양반을 완벽하게 속여, 양반은 물론 양반 일가를 강물에 빠뜨리고, 양반의 딸과 부부가 된다. 외쪽이가 성취한 도시에서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 양반이 마을 안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외쪽이는 죽게 된다. 하지만 동구 밖에서 죽을 위기를 벗어나고, ‘강변’에서 주인 양반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얻어 마을로 귀환하게 된다. 외쪽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마을 안’은, 양반의 신분적 권위가 몰락하고 하인의 승리가 실현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공간이다.

<외쪽의 피>에서 이야기 처음의 ‘마을 안’은 양반의 공간, ‘기존 질서의 유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외쪽이는 일방적으로 패배한다. 마을 밖은 하인과 양반의 다툼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대립’이 나타난다. 양반은 신분적 권위를 가지고 하인 외쪽이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명령하지만, 외쪽이는 이를 번번이 속이고 거역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 승리와 패배의 변곡점은 ‘마을 경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마을 안’에서 외쪽이는 양반에게 승리하는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쪽의 피>의 공간은 ‘마을 안-마을 밖-마을 안’으로 전개되며, 그 의미는 ‘기존 질서의 유지-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대립-새로운 질서의 확립’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질서가 유지된다.[기존 질서의 유

지]를 정명제(thesis)로 본다면, ‘기존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대립]’는 반명제(antithesis)라 할 수 있고, ‘기존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유지된다.[새로운 질서의 확립]’는 합명제(synthesis)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외쪽의 피>의 공간 전개는 正(긍정)-反(부정)-합(부정의 부정)의 형식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sup>20)</sup> 이를 변증법적 공간 전개라고 볼 수 있다. 처음의 마을 안과 결말의 마을 안은 얼핏 보면 같은 공간이지만, 결말의 마을 안에서는 새로운 질서의 확립이라는, 기존의 상황에서 발전되고 확대된 사고를 보여준다.<sup>21)</sup> 그래서 <외쪽의 피>는 변증법적 공간 전개를 통해, 신분 질서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3.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의 전개 양상 비교

<자글대 이야기>의 전개 양상을 살피기 위해,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sup>22)</sup>

1. 주인 좌수 영감이 미모의 여종을 뺏으려 하자, 여종의 아들 자글대가 막아내다.
2. 좌수 영감은 자글대를 죽이기 위해 자글대를 데리고 서울로 가다.

20) ① 강영계, 『헤겔 절대정신과 변증법 비판』, 철학과현실사, 2004, 58쪽. ② 안광복, 『청소년을 위한 철학자 이야기』, 신원문화사, 2005, 131-132쪽. ③ 새뮤얼 이녹 스템프·제임스 피저, 이광래 옮김,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열린책들, 2005, 471-472쪽.

21) 하이스, 황문수 옮김,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서문당, 1996, 231쪽.

22) 분석 텍스트는 박영만 지음, 권혁래 옮김, 『조선전래동화집』, 한국국학진흥원, 2006, 392-405쪽 소재 <자글대 이야기>로 한다.

3. 가던 길에 자글대는 주인의 국수를 숙여 먹고, 주인의 당나귀를 팔아 먹다.
4. 화가 난 좌수 영감은 도착하면 당장 죽이라는 글을 자글대 등에 써서, 자글대를 집으로 돌려보내다.
5. 지나가던 스님이 자글대 등에 쓴 내용을 알려주자, 자글대는 서당 아이에게 부탁해서 큰아기를 아내 삼아주고, 집을 짓고, 세간을 나눠주는 내용으로 고치다.
6. 집으로 돌아온 자글대는 큰아기와 결혼하다.
7. 삼 년이 지나 집에 돌아온 좌수 영감은 자글대를 가족부대에 넣고, 사람을 시켜 강물에 던지려 하다.
8. 가족부대를 지고 가던 사람이 자글대를 버드나무 아래에다 놓고 주막 집에 들어가다.
9. 자글대는 지나가던 애꾸눈 질그릇 장수를 보고, 가족부대에서 주문을 외우면 눈이 뜨여진다고 속여, 자기 대신 강물에 빠져 죽게 하다.
10. 자글대는 일년 후에 좌수 영감에게 다시 나타나, 자신이 용궁에서 왔다고 하다.
11. 자글대는 처가 식구들을 용궁으로 가자고 속여, 자기 아내만 빼고 모두 빠져 죽게 하다.
12. 자글대는 좌수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재미있게 살다.

<자글대 이야기>는 주인에게 학대받던 하인 자글대가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주인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sup>23)</sup> 이를 간단히 구

---

23) 『한국구비문학대계』에 하인의 이름이 ‘자글대’와 비슷한 이야기가 2편 전한다. ‘앙글장글대’로 나오는 각편은 삽화적이고, 『한국구비문학대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74-276쪽.) ‘왕글장글대’로 나오는 각편은 주인 딸이 하인을 죽이고 다른 곳으로 시집가는 것으로 끝난다. 『한국구비문학대계』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468-475쪽.)

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 I.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다.
- II. 하인이 주인을 속이다.
- III.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다.
- IV.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다.
- V. 하인이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딸과 살다.

각 항목은 인과 관계를 이루고 있다. 주인 좌수 영감이 자글대의 아버지와 자글대를 학대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하인 자글대는 주인을 속이게 된다. I이 원인이 되어, II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하인이 주인을 속인 것이 원인이 되어, 자글대가 국수와 당나귀로 주인 좌수 영감을 속인 것이 원인이 되어, 주인은 하인을 죽이려고 한다. II가 원인이 되어, III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주인 좌수 영감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하인 자글대는 죽을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III이 원인이 되어, IV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하인 자글대는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딸과 살게 된다. IV가 원인이 되어, V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사건 전개가 인과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서사의 5단 구성을 적용시켜도 된다. <자글대 이야기>에서 5단 구성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I.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다.(발단)-II. 하인이 주인을 속이다.(전개)-III.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다.(위기)-IV.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다.(절정)-V. 하인이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딸과 살다.(결말)

이 5단 구성은 더 간단히 하면 <외쪽의 피>와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문제 해결’의 양식, 또는 ‘결핍-결핍의 해소’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I은 문제 제기 또는 결핍 단계로 볼 수 있다.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는 문제 상황이고, 하인은 인간적인 대우가 결핍된 상태이다. II는 I의 문제

또는 결핍이 나름대로 해소된 상황이다. 하인은 자신이 받은 학대를 주인을 속임으로써 해결하거나 해소하고 있다. Ⅲ은 다시 제기된 문제이다. I의 문제보다 훨씬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IV와 V는 Ⅲ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문제 상황은 점층적으로 심각해지고, 해결 상황도 그에 맞게 점층적으로 맞서게 된다. 그래서 V는 Ⅲ의 해결이면서 I의 해결이 되기도 한다. 이야기 서두에 제기된 ‘주인의 학대’에 대한 문제가, 주인 좌수 영감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하게 해결된다. 따라서 <자글대 이야기> 역시 <외쪽의 피>처럼 ‘문제 제기 - 문제 해결’의 점층적 양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복손전>의 전개 양상을 살피기 위해,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sup>24)</sup>

1. 충주 감물면(甘勿面) 고강촌(古江村)에 오영환(吳永煥)이란 선비가 교활한 종놈 어복손(魚福孫)을 거느리며 살다.
2. 친구나 친척이 오영환에게 어복손을 조심하라고 해도 오영환은 의심하지 않다.
3. 어복손은 노비로 태어나 한스럽다고 하며 속량(贖良)을 요구하나, 오영환은 거절하다.
4. 어복손은 속으로 한을 품었지만 겉으로는 주인의 의중을 잘 떠받들어 신임을 얻다.
5. 어복손은 일부러 멍청한 체 하여, 오영환은 어복손을 어리석다고 여긴다.
6. 어복손은 주인을 농락하여, 말을 팔아 먹고, 냉면을 거저 먹다.
7. 일지홍(一枝紅)이라는 기생이 오진사의 재산을 탐내어 오진사의 친구

24) 분석 텍스트는 한기형·정환국 역주, 『역주 신단공안』, 창비, 2007, 281-406쪽 소재 <피쟁이 하인 어복손의 신출귀몰>로 한다.



에게 만남을 부탁하다.

8. 오진사의 친구는 상중(喪中)에 있는 오진사를 찾아가 일지홍 이야기를 꺼내다.
9. 오진사는 화를 내며 친구를 쫓아내다.
10. 어복손은 문밖에서 자초지종을 다 듣다.
11. 어복손은 상복을 입고 가서 오진사 행세를 하며 일지홍과 동침하고, 두건을 떨어뜨리고 오다.
12. 일지홍은 오진사를 찾아가서 두건을 주며 행패를 부리며 화대(花代)를 요구하다.
13. 마침 지나가던 오진사의 친구가 일지홍의 이야기를 듣고 오진사를 내리치다.
14. 오진사는 어쩔 수 없이 일지홍에게 화대를 던져주다.
15. 오진사의 친구가 일지홍에게 교활한 종 어복손 이야기를 하다.
16. 오진사가 어복손에게 읍내 백침지 집에 가서 수소 한 마리를 사 오라고 시키다.
17. 어복손은 박침지를 만나 수수 한 말을 사 오다.
18. 오진사 일행이 과거시험을 보러 가다가 짐바리와 돈을 어복손에게 맡기다.
19. 어복손은 짐바리와 돈을 바깥쪽 창문으로 빼돌리고, 벽장인줄 알았다고 하다.
20. 오진사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일지홍은, 자신과 동침한 인물이 어복손인지 의심하다.
21. 어복손은 일지홍을 찾아가, 자기 주인 오진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며 오진사 친구의 뺨을 갈기다.
22. 어복손이 세력 있고 교만한 재상을 찾아가 기발함을 뽐내며 신임을 얻다.
23. 어복손은 재상에게 노비의 슬픔을 하소연하고, 재상은 어복손의 속

량을 약속하다.

24. 오영환은 어복손이 재상집을 출입한다는 것을 알고 유생(柳生)을 찾아가다.
25. 오영환은 유생과 어복손의 일을 의논하고, 어복손은 이를 엿듣다.
26. 어복손은 오영환과 유생이 재상의 둘째 아들에게 재물을 바쳐 자신을 미워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다.
27. 재상의 둘째 아들은 뇌물을 좋아하고[취전구(臭錢狗)] 색을 밝히는 인물[색중귀(色中鬼)]이다.
28. 어느 날 색중귀의 친구가 일지홍이 미인이라고 색중귀에게 알려준다.
29. 어복손이 자기에게 폭 빠진 일지홍과 함께 있을 때, 색중귀가 갑자기 찾아오다.
30. 일지홍은 색중귀의 돈을 바라고 밤을 지새다.
31. 어복손은 일지홍에게 폭 빠진 색중귀를 통해 유생을 쫓아낼 계획을 세우다.
32. 일지홍은 색중귀에게 어복손을 먼 친척이라고 하며 구해달라고 부탁하다.
33. 색중귀는 수백 년 교화의 대법을 어그러뜨릴 수 없다며 거절하다.
34. 일지홍이 눈물과 한숨을 보이자, 색중귀는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다.
35. 오진사와 논의 후에 색중귀를 찾아간 유생은 이유 없이 욕을 듣고 쫓겨나다.
36. 재상이 지방으로 유배되어 어복손의 계획이 허사로 되다.
37. 어복손은 오영환을 찾아가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하다.
38. 오영환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어복손에게 그를 처단하라는 편지를 함께 보낸다.
39. 이를 눈치 챈 어복손은, 오영환의 딸 연옥을 자신에게 시집보내라는 내용으로 바꿔치기 하다.

40. 편지를 본 오영환의 부인과 아들은 이를 의심하다.
41. 어복손은 뽕 따러 간 연옥을 간계(奸計)를 써서 겁탈하다.
42. 서울에서 내려 온 오진사는 어복손의 손발을 묶고 포대기에 넣어 하인들에게 용담(龍潭)에 던지라고 하다.
43. 하인들이 거부하자 직접 자루를 메고 가던 오진사는, 힘이 부쳐 자루를 점방[店屋] 문 앞에 걸어두고 쉬다.
44. 어복손은 마침 지나가던 고종사촌 김정팔(金正八)을 속여 자기 대신 용담에 빠져 죽게 하다.
45. 몇 개월 뒤에 탕건에 창의(擎衣)를 입고 나타난 어복손은, 용궁에서 중군영 장수 벼슬을 하고 있다고 오진사를 꼬드기다.
46. 용궁에서 벼슬하기를 원했던 오진사는 가족을 이끌고 용담에 빠져 죽고, 연옥만 살아남다.
47. 어복손은 자기를 꾸짖는 연옥을 칼로 찢러 죽이다.
48. 고강촌을 달아난 어복손은 전라도 진산(珍山)에서 어극룡(魚克龍)으로 행세하며 이방과 친해지다.
49. 이방은 학질을 앓는 어극룡을 놀래키려고, 곤장으로 어극룡을 놀라게 해 달라고 수령에게 간청하다.
50. 수령이 거짓으로 죄를 묻자, 어복손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본명을 말하다.
51. 오진사와 가까운 친척이던 수령은 어극룡을 치죄하여, 그가 어복손임을 밝혀내다.
52. 수령은 어복손을 처단하다.

<어복손전>은 주인에게 학대받던 하인 어복손이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주인과 딸을 죽이지만, 죄상이 탄로 나서 자신도 죽게 된다는 이야기이다.<sup>25)</sup> <외쪽이 꾀>나 <자글대 이야기>에 비해, 화소가 많고 시간 역

---

25)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상전을 속인 하인>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상 <魚福孫

전의 구성도 보이지만, 이 이야기를 간단히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 I.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다.
- II. 하인이 주인을 속이다.
- III.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다.
- IV.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다.
- V. 하인이 주인과 딸을 죽이지만, 죄상이 밝혀져 자신도 처단되다.

각 항목은 인과 관계를 이루고 있다. 주인 오영환은 하인 어복손의 속량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인의 속량은 주인의 고유 권한이다. 신분제 사회에서 주인이 하인의 속량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하인 어복손에게, 속량을 허락하지 않는 주인 오영환의 행위는 엄청난 학대로 다가온다.<sup>26)</sup> 주인 오영환이 하인 어복손을 속량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 주인이 하인을 학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어복손은 오영환을 골탕 먹이고 속이게 된다. I이 원인이 되어, II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수소[황소] 대신 수수를 사 오고, 주인 일행의 짐바리와 돈을 빼돌려 차지하고, 기생에게 망신 당하게 한다. 결국에는 주인 몰래 세도 재상에게 줄을 대어 자신의 속량을 약속 받는다. 하인이 주인을 속인 것이 원인이 되어, 어복손이 여러 가지로 주인 오영환을 속이게 되

傳>과 아주 유사한 각편이 전한다. 주인공은 ‘어복순’이고, 주인 오진사 오영환은 충청도 교산[槐山]에 사는 사람으로 나온다. 어복순은 종년과 이미 결혼을 했고, 결말 부분에서는 주인 딸도 함께 수장시키고,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전라도 무주로 도망가는 것으로 나온다.(무주와 진산은 서로 경계를 이루는 지역임.) 전체적으로 『神斷公案』의 <魚福孫傳>과 사건 전개와 배경이 비슷하고, 특히 주인공과 적대자의 이름이 ‘어복순’과 ‘오영환’으로 나와서, 기록문학이 구비설화로 채록된 것으로 보인다.(『한국구비문학대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522-533쪽.)

26) 신분제의 철폐는 공식적으로 1894년이지만, 그 이후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인 외 지음, 강웅천 편저, 『19세기 인민의 탄생』, 민음사, 2015, 191쪽을 참조할 것.

어, 주인은 하인을 죽이려고 한다.

Ⅱ가 원인이 되어, Ⅲ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하인은 죽을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Ⅲ이 원인이 되어, Ⅳ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어복손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화가 난 주인 오영환은, 어복손을 집으로 돌려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집에 도착하면 어복손을 처단하라고 한다. 이를 눈치 챈 어복손은 오히려 주인의 딸과 결혼시키라는 내용으로 바꾼다. 주인집으로 와서는 자신의 뜻대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인 딸을 겁탈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주인은 어복손을 묶고 자루에 넣어, 용담에 던져 넣으려 한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어복손은 마침 지나가던 고종사촌 김정팔을 속여 자루 속에 대신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는다.

마찬가지로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하인 어복손은 주인 일가를 물에 빠뜨리고 주인 딸을 죽이게 되지만, 결국에는 죄상이 탄로 나서 자신도 처단된다. Ⅳ가 원인이 되어, 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사건 전개가 인과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서사의 5단 구성을 적용시켜도 된다. <어복손전>에서 5단 구성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I.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다.(발단)-Ⅱ. 하인이 주인을 속이다.(전개)-Ⅲ.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다.(위기)-Ⅳ.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다.(절정)-Ⅴ. 하인이 주인과 딸을 죽이지만, 죄상이 밝혀져 자신도 처단되다.(결말)

이 5단 구성은 더 간단히 하면 <외쪽의 피>와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문제 해결’의 양식, 또는 ‘결핍-결핍의 해소’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I은 문제 제기 또는 결핍 단계로 볼 수 있다.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는 문제 상황이고, 하인은 인간적인 대우가 결핍된 상태이다. Ⅱ는 I의 문제 또는 결핍이 나름대로 해소된 상황이다. 하인은 자신이 받은 학대를 주인을 속임으로써 해결하거나 해소하고 있다. Ⅲ은 다시 제기된 문제이

다. I의 문제보다 훨씬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IV와 V는 III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문제 상황은 점층적으로 심각해지고, 해결 상황도 그에 맞게 점층적으로 맞서게 된다. 그래서 V는 III의 해결이면서 I의 해결이 되기도 한다. 이야기 서두에 제기된 ‘주인의 학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어복손전> 역시 <외쪽의 피>나 <자글대 이야기>처럼 ‘문제 제기 - 문제 해결’의 점층적 양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복손전>의 문제 해결은, <외쪽의 피>와 <자글대 이야기>처럼, 완전한 해결,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은 아니다. 하인 어복손은 자신의 속량을 위한 완벽한 해결을 위해 주인 일가를 죽음에 빠뜨린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하인으로 보거나 부릴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어극룡’으로 변성명하여 지역을 옮겨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살게 된다. 아무도 어극룡을 어복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장난처럼 자신의 신분과 죄상이 드러나게 되고, 어복손은 처단된다.<sup>27)</sup>

위에서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 세 이야기의 전개 양상을 비교해 보았다. 세 편의 이야기는 전개 양상이 거의 비슷했다. 주인이 하인을 학대한다는 사건에서 시작해서 하인이 주인을 죽음에 빠뜨린다는 결말이 인과적으로 전개되었다. ‘학대 받는 하인’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여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보여주는 ‘문제 제기-문제 해결’의 양식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서사의 5단 구성과도 일치하여, 세 편의 이야기는 특정한 유형에 속한 비슷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그 특정한 유형은 하인의 기지와 재치를 보여주는 이야기여서 ‘피쟁이 하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세 편의 이야기는 사건 전개의 공통성을 띠고

27) 주인을 죽인 하인이 처단된다는 관점에서, 이 작품을 추노설화(推奴說話)를 바탕으로 창작한 송사소설(訟事小說)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405쪽을 참조할 것.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개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I.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다.
- II. 하인이 주인을 속이다.
- III.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다.
- IV.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다.
- V. 하인이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딸과 살다. [하인이 주인과 딸을 죽이지만, 죄상이 밝혀져 자신도 처단되다.]

위의 과정을 보면, 사건 전개는 비슷해도 결말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점을 볼 수 있다. <외쪽의 피>와 <자글대 이야기>는 하인이 행복 또는 하인의 승리로 끝나지만, <어복손전>에서는 하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 하인의 행복 또는 하인의 승리로 보기 어렵다. <어복손전>의 결말은 일단 ‘하인의 패배’로 볼 수 있는데, 이 패배가 하인의 일방적인 패배는 아니다. 어복손은 자신의 속량을 둘러싸고 주인과 대결을 벌였는데, 거의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마지막에 작은 실수로 자신의 신분과 죄상이 드러나 파멸에 이르게 된다.

위에서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 결과, 사건 전개가 거의 비슷했고, 결말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의 구성 요소 비교

##### 1) 인물

<외쪽의 피> 이야기의 인물 분석에서 등장 인물을 주인공, 적대자,

조력자, 희생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의 인물 분석과 비교도 이 방법에 따라 살펴기로 하겠다.

<자글대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주인, 하인, 하인의 편지를 고쳐 주는 스님과 서당 아이, 하인 대신 죽는 희생자, 하인과 혼인하는 주인의 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인은 주인 좌수 영감으로 등장한다. ‘마음씨가 그리 곱지 못한’ 주인 좌수 영감은 머슴살이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인물이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풀 수 없는 난제를 여러 번 제시하지만, 머슴의 아들 자글대가 난제를 쉽게 해결한다. 좌수(座首)는 조선시대 지방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두었던 향청(鄕廳: 留鄕所)의 우두머리인데, 향사(鄕士)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향사들이 선거하여 수령이 임명하였다.<sup>28)</sup> 하지만 <자글대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 좌수 영감’은 덕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덕망과 거리가 먼, 마음씨가 그리 곱지 못한 주인 좌수 영감은 주인공 자글대를 괴롭히는 적대자이다.

주인에 비해 이에 맞서는 인물인 주인공 자글대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 주인 좌수 영감과 맞서는 인물은 주인 좌수 영감집 머슴살이의 여덟살 된 아들로 등장하는데, 신분, 권력, 금력, 연령 등의 요소에서 모두 약자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 여덟살 된 하인의 아들은 기지와 재치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주인을 속이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주인의 딸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

여기서 ‘자글대’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자. 기존의 각편에서 하인의 명칭은 ‘앙글장글대’ 또는 ‘왕글장글대’로 나타난다.<sup>29)</sup> 하지만 아직까지 ‘자글대’, ‘앙글장글대’, ‘왕글장글대’의 명확한 뜻은 밝혀지지 않았다. ‘자글

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787쪽.

29) ‘왕글장글대’란 제목으로 출판된 아동용 서적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성실, 『왕글장글대』, 교원, 2001을 참조할 것.



대'라는 명칭은 '자글대다', '자글거리다'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자글대다=자글거리다'이고, '자글거리다'는 '적은 양의 액체나 기름 따위가 걸쭉하게 찾아들면서 자꾸 소리를 내며 끓다.'라는 뜻이다.<sup>30)</sup> 주인 좌수 영감의 욕망을 자꾸 방해하는 하인 아들의 존재는 '자꾸 소리를 내며 끓'는 존재, 주인의 의지 실현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자글대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앙글장글대' 또는 '왕굴장굴대'라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앙글'은 '앙글거리다'의 어근이다. '앙글거리다'는 '무엇을 속이면서 자꾸 꾸며서 웃다.'는 뜻이다.<sup>31)</sup> 그러니까 '앙글'에는 '피쟁이'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앙글장글대'는 '뭔가를 속이면서 누군가를 성가시게 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뭔가를 속이면서 누군가를 성가시게 하는 피쟁이'는 <자글대 이야기>에서 '자글대'의 성격과 특성을 잘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글대'는 '자글대'를 부드럽게 발음한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왕굴장굴대'는 '앙글장글대'를 더 부드럽게 발음한 단어로 볼 수 있다. '왕굴장굴'이라는 말은 최남선의 <이야기>라는 시에서도 확인이 될 만큼, 당대에는 많이 쓰였던 단어로 추정된다.<sup>32)</sup>

하인 자글대를 때려 죽이라는 편지를, 주인 좌수 영감의 딸과 결혼시키라는 내용으로 바꾸어주는 인물로는 스님과 서당 아이가 등장한다. 자글대의 의지 실현을 도와주는 조력자인데, 길을 가던 스님은 자글대 등에 쓰인 내용을 알려주고, 서당 아이는 편지 내용을 '큰 아기를 아내 삼아주라.'고 고쳐준다. 다른 사람의 편지를 고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이다. 스님은 세상에 정당성을 알리고 실천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편지 내용을 알리는 주지만, 고치지는 않는다. 물론 자글대도 스님에게 편지 내용을 고쳐 달라고 하지 않는다. 등에 쓰인 내용을 강물에 들어가

30)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000, 5093쪽.

31) 국립국어연구원, 위의 책, 4100쪽.

32)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좀 하세요, 왕굴장굴 어중씨중, 할아버지 이야기, 그  
운이 나 — 요” 시 전문은 <https://gongu.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씻어버리고는, 옆에 있는 서당 아이에게 편지 내용을 다시 써 달라고 한다. 아이는 무엇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에는 연령상 부족한 존재이다. 그래서 편지 내용을 써 주지만, 자글대의 등에 원래 무슨 내용이 쓰였는지는 모른다. 이러한 사건 전개는 박진감과 사실성을 상당히 고려한 구성이다.

퐁퐁 묶인 채 가족부대에 갇힌 자글대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자는 ‘애꾸눈 질그릇 장수’로 등장한다. ‘애꾸눈 질그릇 장수’는 건강한 삶과 정착된 삶에서 소외된 존재이다. 눈이 한 쪽뿐이고,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눈은 생명의 상징이다. 그래서 한쪽 눈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생명에서 떨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떠돌이 삶 역시 건전한 삶에서 떨어진 존재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 ‘정착’은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정착’과 거리가 있는 ‘떠돌이’ 삶은 당대 사회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삶이다. 따라서 ‘애꾸눈’과 ‘떠돌이’는 당대의 정상적인 삶에서 두 단계나 떨어진, 삶의 허약함과 미약함을 내재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주인 좌수 영감의 딸은 자글대와 부부가 된다. 좌수 영감의 딸은 자글대와 혼인함으로써, 자글대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한 방편이 된다. 자글대의 의지나 욕망은, 자신과 아버지가 주인의 부당한 대우, 학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주인 딸과의 결혼은, 주인의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는 자글대의 의지를 완성시키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인 딸은 자글대의 의지 실현을 돕는 조력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글대 이야기>의 인물은 주인공(자글대), 적대자(주인 좌수 영감), 조력자(스님, 서당 아이, 주인 딸), 희생자(애꾸눈 질그릇 장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복손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주인, 하인, 하인 어복손을 도와주는 존재, 하인 대신 죽는 희생자, 하인이 혼인하려는 주인의 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인은 진사 오영환으로 등장한다. 일생 동안 쓰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지만,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반면에 하인 어복손은 교활한 인물로 나온다. 그래서 어리석은 주인 오영환은 교활한 하인 어복손에게 농락당한다. 하지만 오진사는 어복손의 속량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어복손의 가장 큰 희망이자 소원은 속량인데, 주인 오영환은 주인공 어복손의 의지 실현을 방해하기에 적대자로 볼 수 있다.

주인 오진사의 속량 거부에 앙심을 품은 하인은 어복손으로 등장한다. 속량을 원한다는 것을 현실 속의 침울에서 명백한 자기 인식을 찾는 과정으로 본다면, 어복손을 소위 ‘문제적 개인’<sup>33)</sup>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주인공 어복손은 천성이 사특하고 교활하고, 노비 신분에 대한 신세 한탄을 쉴 새 없이 늘어놓는 인물이다. 어리석은 체하며 주인 오진사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껏 농락한다. 주인공이지만 착하고 선량한 인물이 아니고,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주인 딸을 겁탈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주인 딸을 죽이기까지 하는 잔인한 인물이다.

하인 어복손의 속량을 도와주는 인물은 세도 재상과 기생 일지홍(一枝紅)이다. 세도 재상은 어복손의 기발함과 노비의 슬픔을 인정하고는 속량을 약속한다. 일지홍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하여, 세도 재상의 둘째 아들 취전구(臭錢狗)이자 색중귀(色中鬼)에게, 눈물과 한숨으로 어복손의 속량을 부탁한다. 물론 세도 재상의 실권(失權)으로 인해 어복손의 속량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지홍과 재상은 어복손에게 필요한 도움을 준 조력자로 볼 수 있다.

손발이 묶인 채 큰 자루에 갇힌 어복손을 대신해서 죽는 희생자는, 어복손의 고종사촌 ‘김정팔’로 등장한다. 김정팔은 ‘집도 없고 제 방도 없이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는 신세’이다. 삶의 기본적인 조건과 정착으로부터

33)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옮김, 『루카치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98, 86-87쪽.

터 소외된 존재이다. 어복손은 이러한 김정팔에게, 자루 속에 들어가면 ‘일년 신수가 편안하고 안락해진다’고 한다. 김정팔은 삶에서 소외된 존재이기에 어복손 대신 희생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오진사의 딸은 혀를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 어복손을 꾸짖다가, 그에게 찢려 죽는다. <외쪽의 피>와 <자글대 이야기>에서 주인의 딸은 하인과 혼인함으로써, 하인의 욕망 실현을 돕는다. 외쪽이도 주인의 딸과 혼인하고, 자글대도 주인의 딸과 혼인한다. 하지만 <어복손전>에서 주인의 딸은 하인과 혼인하지 않는다. 하인 어복손에게 겁탈 당한 주인 딸은 함께 살자는 하인의 말을 거부하고, 하인의 행위를 엄하게 나무란다. 이에 화가 난 하인 어복손은 주인의 딸을 찢려 죽인다. 즉, <어복손전>에서 주인의 딸은 어복손의 의지 실현을 방해하는 적대자로 기능한다. <외쪽의 피>와 <자글대 이야기>에서는 주인 딸이 조력자로 기능하는데, <어복손전>에서는 주인 딸이 적대자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복손전>의 인물은 주인공(어복손), 적대자(진사 오영환, 오영환의 딸), 조력자(세도 재상, 일지홍), 희생자(고종사촌 떠돌이 김정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에서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의 인물 양상을 살펴보았다. 인물들을 주인공(하인), 적대자(양반, 양반의 딸), 조력자(양반의 딸, 서당 학동, 스님, 세도 재상, 일지홍), 희생자(잔질개 할멈, 애꾸눈 질그릇 장수, 고종사촌 떠돌이 김정팔) 등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각 이야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은 거의 비슷했다. 이것은 인물의 형상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4)</sup>

우선 양반으로 등장하는 적대자는 신분, 권력, 금력, 지식 등의 면에서 주인공 하인을 압도하고 있었다. 하인 주인공은 양반 적대자가 지닌 신분적 우위, 권력, 금력, 지식을 거의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자

34)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159쪽.

글대 이야기>에서는 연령적으로도 열세였다. 하지만 하인 주인공은 이러한 약점을 기지, 재치, 피, 속임수로 극복하고 있었다. 신분, 권력, 금력, 지식의 열세를 기지, 재치, 피, 속임수로 맞서고 있었다.

신분, 권력, 금력, 지식 등은 ‘신분’으로 수렴되고, 기지, 재치, 피, 속임수 등은 ‘지혜’로 수렴된다. 신분이 있어야, 권력, 금력,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기지, 재치, 피, 속임수를 지닐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하인 주인공은 양반 적대자가 지닌 신분의 힘을 지혜의 힘으로 이겨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 유형을 ‘피쟁이 하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적대자의 엄청난 힘과 세력을 지혜로 이겨내는 것이, 인물 분석에서 나타난 공통점이다.

주인공 하인 대신 죽는 희생자의 양상도 세 이야기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인 대신 희생당하는 인물은 잔질개 할멈, 애꾸눈 질그릇 장수, 떠돌이 김정팔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건전한 생활인이 아니라, 정상인과는 거리가 있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권력, 금력, 건강, 지력(智力)의 측면에서 하인만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병을 달고 사는 늙은 할멈, 한쪽 눈이 먼 채 떠돌아 다녀야하는 행상, 집도 없고 방도 없이 사방으로 떠도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 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권력, 금력, 건강에서 소외된 것보다 지력에서 소외된 것이, 이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기본적인 지혜만 있었어도, 하인의 계략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하인 대신 죽는 희생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sup>35)</sup>

35) 약자인 주인공이 자신보다 더 약자인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화소는 전통적인 서사문법-권선징악의 관점에서는 어색한 사건 전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피쟁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 피를 쓰든 살아남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윤리 이전에 생존이 먼저인 상황이다. 이러한 ‘피쟁이’는 비도덕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도덕을 초월한 도덕 관념이 없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도덕이나 윤리 개념이 없는 이러한 특성을 ‘경계성’이라고 규정짓고, 이를 트릭스터의 특성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이에 비해 차이점은 주인 딸의 기능이다. <외쪽의 피>와 <자글대 이야기>에서는 주인 딸이 조력자로 기능하는데, <어복손전>에서는 적대자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하인 남성과 양반 주인 딸의 결혼은 그 자체로 신분, 권력, 금력, 지식 등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분적인 차이를 뛰어넘는 결혼이어서, 하인과 양반의 대결에서 하인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하인 남성은 주인 양반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양반의 학대’를 완전하게 이겨내고, ‘신분’으로 대표되는 양반의 강점을 약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주인 딸이 하인과의 결혼을 죽음으로서 거부한다는 사건은, 신분, 권력, 금력, 지식의 차별을 여전히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즉, 하인이 극복하고자 한 ‘양반의 학대’가 주인 딸에 의해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이다. <어복손전>에서 주인 딸이 하인 어복손의 적대자로 기능한다는 것은, 어복손이 간절히 원한 속량을 주인 딸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2) 사건

<자글대 이야기>의 사건을 5단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다.

마음씨가 그리 곱지 못한 주인 좌수 영감이 머슴살이의 아내를 뺏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어서, 풀지 못하면 머슴의 아내는 자기 것이 된다고 한다. 그 문제는 김 풀 수 알아내기, 재[仄]로 동아줄 꼬기, 겨울에 딸기 구하기, 자갈돌로 배 만들기 등이다. 하지만 머슴살이의 아들 자글대가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 화가 난 좌수 영감

---

을 희생시키는 이야기는 세계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9-118쪽을 참조할 것.

은 머슴살이의 아내를 빼앗으려면, 자글대부터 없애야겠다고 생각한다. 주인 영감은 하인과 하인의 아들 자글대를 함께 학대하고 있다. <외쪽의 꾀>에 비해 학대의 양과 질이 심하다.

## II. 하인이 주인을 속이다.

서울로 가는 중로에서 자글대는 국수를 사 오면서 벌레가 빠졌다고 손가락으로 짚는다. 이를 본 좌수 영감은 국수를 자글대에게 준다. 다시 국수를 사오라고 시키자, 이번에는 콧물을 흘려 또 영감 대신 국수를 먹는다.

두 번이나 국수를 못 먹게 된 좌수 영감은 자신이 직접 국수를 사러 간다. 그러면서 자글대에게 눈알 뽑는 귀신이 있으니, 당나귀 고삐를 짊어주고 있으라고 시킨다. 자글대는 길 가던 나그네에게 당나귀를 팔아버리고는, 고삐만 쥐고 얼굴을 땅에 파묻고 있다. 연유를 묻는 좌수 영감에게, 아마도 눈알 빼 먹는 귀신이 고삐를 잘라 당나귀를 가져 간 것 같다고 둘러댄다.

## III.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다.

주인은 2번에 걸쳐 하인 자글대를 죽이려고 한다. 먼저 서울에서 집으로 자글대를 내려보내면서 자글대 등에다가, ‘집에 도착하면 때려 죽여라.’는 글을 써 보낸다. 3년 후에 집으로 돌아온 주인 좌수 영감은 자글대가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부대에 넣어 강물에 던지려고 한다.

## IV.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다.

자글대는 집으로 내려가다가 우연히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스님이 자글대 등에 쓰여진 글의 내용을 알려준다. 자글대는 강물에 들어가 그 글을 씻어버린다. 그리고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 서당 아이

에게 부탁하여, ‘큰 아기를 아내삼아 주고, 집을 짓고 세상을 나눠 주어라.’고 고쳐 쓰게 한다.

삼 년이 지나서 서울에서 집으로 돌아온 좌수 영감은 자글대를 가죽부대에 넣어 강물에 던지려고 한다. 가죽부대에 갇힌 자글대는 지나가던 애꾸눈 질그릇 장수를 보고, 가죽부대에 들어가면 눈을 뜰 수 있다고 속인다.

가죽부대에 갇힌 자글대는 ‘네 눈 감감, 내 눈 반짝, 네 눈 감감, 내 눈 반짝!’이라고 외우면 눈을 뜰 수 있다고 애꾸눈 질그릇 장수를 유혹한다.<sup>36)</sup> 이처럼 어떤 주술구를 이용하여 눈을 고친다는 것은 민간에서 널리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sup>37)</sup> 자글대는 널리 행해진 주술구를 이용하여, 눈을 뜰 수 있다고 애꾸눈 질그릇 장수를 속여, 자기 대신 가죽부대에 들어가게 하고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다.

#### V. 하인이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딸과 살다.

일 년 뒤에 주인집에 다시 나타난 자글대는, 좌수 영감에게 자신은 용궁에 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용궁에 가면 살기 좋다고 좌수 영감을 속여, 좌수 영감 일가를 강물에 빠뜨린다. 자글대는 좌수 영감 일가를 물에 빠뜨린 후, 자기 색시가 된 좌수 딸은 살려서 좌수 영감 집에서 함께 살게 된다.

<어복손전>의 사건을 5단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다.

36) 박영만, 권혁래 옮김, 『조선전래동화집』, 한국국학진흥원, 2006, 402쪽.

37) 눈병이 생겼을 때, ‘네 눈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면, 네 눈에 칼을 박겠다.’는 주술구를 써 놓으면 안질이 치료된다는 민간 요법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175쪽을 참조할 것.



하인 어복손의 신분은 솔거노비(率居奴婢)에 해당되는데, 솔거노비는 행동의 자유가 없고 잡역 및 농경에 최대한 사역되는 조선시대 노비 가운데 최악의 위치였다.<sup>38)</sup> 그래서 하인 어복손은 주인 오영환에게 속량(贖良)을 요구하자, 오영환은 어복손을 결박하여 20대를 내리치며 속량을 거부한다. 주인이 속량을 요구하는 하인을 때로 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다. 속량이 아니라 하찮은 잘못에도 주인은 하인을 때릴 수 있다. 사노비와 그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상전은 노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라도 가할 수 있다.<sup>39)</sup>

하지만 조선후기, 근대이행기에 주인과 하인의 관계는 예전의 엄격한 주종 관계와는 달리 많이 느슨해진다. 중세를 지나 근대로 진입하려는 교차로에는 신분제 해체라는 건널목이 놓여 있었다.<sup>40)</sup> 특히 하층민의 의식이 성장하고, 법적으로는 노비 해방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노비 해방의 법과는 상관없이, 신분제에 입각하여 철저한 상하귀천의 명분과 법적 규정을 고수한 주인도 있었다.<sup>41)</sup> 오영환은 이런 주인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속량을 거부하는 주인의 행위가 정당하다. 하지만 시대적인 분위기의 변화와 하인 계층의 각성, 또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인해, 속량을 거부하는 주인에 대해 원한을 품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하인의 속량을 거부하는 주인의 행위가, 주인이 하인을 확대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 II. 하인이 주인을 속이다.

하인 어복손은 6번에 걸쳐 주인 오영환을 속인다. 첫째, 어복손은 주인의 말을 팔아먹는다. 서울 종로에 도착한 주인이, 서울은 눈 감으면 코를 베어 가는 세상이니 조심하라고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다. 그 사이

3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681쪽.

39) 앞의 책, 682쪽.

40) 김정인 외, 강웅천 편저, 『19세기 인민의 탄생』, 민음사, 2015, 189쪽.

41)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2002, 330쪽.

에 어복손은 말을 몰래 팔아버리고는 고삐만 잡은 채 얼굴을 땅에 묻고 있다. 그러면서 코 없는 사람을 보고 겁이나서 고삐만 잡고 얼굴을 땅에 묻고 있었는데, 말이 없어졌다고 둘러댄다.

둘째, 주인이 냉면을 사 오라고 시키자, 냉면 그릇을 손가락으로 휘저으면서 사 온다. 주인이 연유를 물어보니, 콧물을 빠뜨려 더듬어 찾는 중이라고 한다. 주인은 멍청한 놈이라고 일갈한다.

셋째, 주인 오진사가 서울에서 묵고 있던 여관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일지홍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다. 일지홍이 오진사의 재산을 탐내어, 이미 알고 지내던 오진사의 친구에게 오진사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한다. 오진사의 친구는 오진사에게 와서 그 말을 전하지만, 오진사는 화를 내며 친구를 쫓아버린다. 문밖에서 자초지종을 들은 어복손은 그날 밤에 일지홍을 찾아가, 오진사인 척 하고 일지홍과 동침한다. 오진사가 상중(喪中)인 것을 알고, 일부러 두건을 떨어뜨리고 간다. 다시 온다던 어복손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일지홍은 오진사를 찾아가 화대(花代)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린다.

넷째, 주인이 시킨 심부름을 일부러 잘못 알아들은 채 하고 돈을 써 버린다. 주인 오진사가 어복손을 보고 백침지에게 가서 수소 한 마리를 사 오라고 한다. 다음날 정오에 나타난 어복손은 백침지에게 가서 수수 한 말을 사 왔다고 하며 시침을 떤다. 오진사는 어복손에게 ‘이 멍청한 놈아!’라고 나무랄 뿐이다.

다섯째, 과거 시험을 보러 함께 떠난 어복손이 객점에서 주인과 일행의 짐바리와 돈을 빼돌린다. 오진사 동료 수십명과 자제 네다섯이 어느 객점에 머물면서 불재(佛齋)를 구경하러 가게 된다. 오진사는 어복손에게 짐바리를 잘 지키라고 당부한다. 어복손은 바깥쪽 창문으로 짐바리를 던져버리고는 벽장에 넣어 두었다고 둘러댄다. 여비를 잃어버린 일행은 혼란에 빠진다. 주인 오진사는 ‘이 멍청한 놈아!’ 하면서 나무랄 뿐이다.

여섯째, 주인에게 직접 속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복손은 당

대 세도 재상을 찾아가 신임을 얻고 자신의 속량을 부탁한다. 세도 재상은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집으로 오려면, 최고 양반이어야 하고, 최고 인물이어야 하며, 최고 문장, 최고 말솜씨여야 한다고 써 붙인다. 이를 들은 어복손은 재상을 찾아가 자신은 신과 자리를 파는 사람인데, 시장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자신을 양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최고 양반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 마누라가 자신을 최고 인물로 말하고, 향렬이 최고 높고, 자신이 대감을 웃기니 언변도 최고라고 하면서, 재상을 만족시킨다. 이후에도 재상집에 출입하면서 재상의 신임을 얻은 어복손은 마침내 재상에게 자신의 속량을 하소연하고, 재상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오영환은 전부터 재상댁을 드나들었지만, 최고 양반, 최고 인물, 최고 문장, 최고 말솜씨여야 출입이 허용된다는 글이 써 붙여진 이후로는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복손은 주인 오영환 몰래 재상댁을 출입하면서 자신의 속량을 이루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어복손은 재상집 출입을 주인에게 속인다. 그리고 오영환이 친구인 유생(柳生)과 자신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하지만 어복손은 계속 자고 있었던 것처럼 하여 주인을 속인다.

### Ⅲ.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다.

주인 오영환은 하인 어복손을 2번이나 죽이려고 한다. 어복손을 속량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재상이 갑자기 유배에 처해진다. 실의에 빠진 어복손은 오진사에게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하고, 오진사는 어복손을 처단하라는 편지를 함께 보낸다. 하지만 어복손은 편지 내용을 고쳐 죽지 않는다. 다음날, 서울에서 내려온 오진사는 어복손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자루에 넣어 연못에 던지려고 한다.

### Ⅳ.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났다.

한문을 모르는 어복손이지만, 편지 내용이 자신을 처단하라는 것이라

는 것을 눈치 채고는, 주인의 딸 연옥을 자신에게 시집보내라고 한글로 고친다.

서울에서 내려온 오진사는 어복손을 자루에 넣어 용담(龍潭)이라는 못에 던지려고 한다. 이때 어복손의 고종사촌인 어리석은 떠돌이 김영팔이 우연히 자루에 갇힌 어복손 곁을 지나게 된다. 어복손은 그믐날 자루에 들어가면 일년 신수가 편안해진다고 김영팔을 속여, 자기 대신 자루에 들어가게 한다. 김영팔은 용담에 던져지고, 어복손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다.

V. 하인이 주인과 딸을 죽이지만, 죄상이 밝혀져 자신도 처단되다.

몇 개월 후에 어복손은 탕건에 창의를 입고 오진사를 찾아간다. 자신은 용궁에서 중군영(中軍營) 장수 벼슬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진사에게도 용궁으로 가면 벼슬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어복손의 감언이설에 오진사 일기는 모두 용담에 빠지고 딸 연옥만 살아남는다. 함께 살자는 어복손의 제안을 연옥이 꾸짖으면서 거부하자, 어복손은 연옥을 찢러 죽인다.

연옥을 살해한 어복손은 고강촌을 달아나 전라도 진산(珍山)에서 어극룡으로 행세하다가, 정체와 죄상이 탄로 나서 처단된다.<sup>42)</sup>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의 사건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결말 부분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 이야기는 ‘I.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다. II. 하인이 주인을 속이다. III.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다. IV.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다.’라는 공통적인 사건 단계를 보이고 있다.

42) 면천(免賤)을 위한 어복손의 항거를 근대적 자각 정신의 발로(發露)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史的 研究』, 일지사, 1982, 82쪽을 참조할 것.

이러한 사건 전개는 더 간단히 하면, ‘문제 제기-문제 해결’ 또는 ‘결핍-결핍의 해소’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주인공인 하인 외쪽이, 자글대, 어복손에게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학대’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결핍된 것은 ‘인간다운 삶’이다. 외쪽이, 자글대, 어복손은 각각 시골 양반, 주인 죄수 영감, 진사 오영환으로부터 ‘학대’ 받고, 끼니조차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인간다운 삶의 결핍’ 속에 살고 있었다. 거듭되는 주인의 학대를, 심지어 자신에게 2번씩이나 가해지는 죽음의 위기를 기지와 재치와 속임수로 이겨낸다. 그리하여 결말에서는 학대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얻게 된다.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은 이러한 공통적인 사건을 보이고 있지만, 결말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에서는 결말이 ‘Ⅴ. 하인이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딸과 살다.’로 나타나지만, <어복손전>에서는 ‘Ⅴ. 하인이 주인과 딸을 죽이지만, 죄상이 밝혀져 자신도 처단되다.’로 나타난다. 즉, <어복손전>은 하인이 주인을 죽이는 결말까지는 비슷하지만, 이후 주인 딸을 죽이고, 자신도 정체가 탄로 나서 처단되는 부분은,<sup>43)</sup> <외쪽의 피>와 <자글대 이야기>와는 다르다. 간단히 말하면, 두 이야기는 ‘하인의 행복’으로 끝나고, <어복손전>은 ‘하인의 불행’으로 끝난다. 하인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분기점은 주인 딸과의 혼인이 성공적인가의 여부에 있다. 하인이 주인 딸과의 혼인을 간절히 원하고, 주인 딸과의 혼인 여부에 따라, 이후 삶의 행복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조선조에서 1731년 시행한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44)</sup> 즉, 노비와 양민이 혼인할 경

43) 이 부분은 재판(裁判) 사건을 일화적(逸話的) 서술 형식으로 재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97, 49쪽.) 사건 전개상, 특히 어복손의 주도면밀함을 고려할 때, 사실성이나 인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부분을, 공안소설(公案小說)의 사건 처리 부분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고 보아, 구성상의 미숙성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환국, 앞의 논문, 48-50쪽을 참조할 것.

44)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17, 463-464쪽.

우, 그 소생 자녀는 모(母)의 신분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만약 남성 하인이 여성 양반과 결혼할 경우, 그 소생은 하인 신분을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인인 외쪽이, 자글대, 어복손은 주인 양반 딸과의 혼인을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두 이야기와는 달리 왜 <어복손전>은 ‘하인의 불행’이라는 결말을 보이는가? 우선 어복손의 행위가 외쪽이나 자글대에 비해 훨씬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어복손이 주인의 딸을 죽이는 행위는 어복손 처단이라는 결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사건인데, 이는 어복손의 파멸이라는 결과의 복선으로 볼 수도 있다. 어복손의 행위를 선과 악으로 나눌 때, 외쪽이나 자글대에 비해 악행의 비율이나 밀도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어복손은 파멸로 이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주인공 어복손의 행위로 인해, ‘하인의 불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원인으로 권선징악을 기대하는 독자층의 기대 지평 또는 공감을 들 수 있다. 독자들이 읽었을 때, 어복손은 공감하기 힘든 인물 유형이고, 악인형 인물이다. 어복손이 주인을 죽이는 다른 행위들도 공감하기 힘들지만, 주인 딸의 살인에 이르게 되면 도저히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 독자는 독서 행위 과정에서 긍정적 인물에게는 자아 동일시 감정을 느끼고, 부정적이거나 악인형 인물에게는 우월한 입장에서 풍자적인 감정을 느낀다.<sup>45)</sup> 어복손의 거듭되는 악행에 독자층의 기대 지평은 어복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어복손의 몰락’을 예상하게 된다. <어복손전> 발행 당시의 독자층의 관념에서도 ‘권선징악’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다.

독자의 기대 지평 또는 공감이 반영된 예는 채록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하인이 주인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때문에, <자글대 이야기>의 결말을 비극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각편을 볼 수 있다. 구비 전승되는 <영악한 중의 말로>라는 ‘피쟁이 하인’ 유형의 이야기는, <자

45)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 사전』, 민음사, 2001, 358쪽.

글대 이야기>와 사건 전개나 인물 설정이 거의 비슷한데도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난다. 상전이 종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난제를 제시하고, 이를 종의 아들이 해결하는 모습이 비슷하고, 한양行, 주인 속이기, 강물에 던져질 위기, 지나가는 사람을 속여 죽을 위기 벗어나기, 주인 딸과의 혼인 등의 화소가 비슷하다. 하지만 결말은 주인공인 하인 아들의 죽음으로 끝난다. 주인 딸은 종의 아들과 결혼하여 그의 아들 딸까지 낳고 살지만, 우물 청소를 하던 날에, 자기 남편인 종의 아들과 그의 소생을 우물에 밀어 넣고 자신도 자진을 한다.<sup>46)</sup>

셋째 원인으로 작가 의식을 들 수 있다. 문학 작품은 작가의 지향적 의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sup>47)</sup> 이러한 작가의 지향적 의도, 즉 작가 의식은 작가의 이데올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등장인물의 행위와 작품 내용에 대한 화자의 직접 언급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작품에 형상화된 등장인물의 행위가 작가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sup>48)</sup> <외쪽의 피>나 <자글대 이야기>에 비해, 어복손은 훨씬 나쁜 하인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외쪽이나 자글대에게 보이는 착함이나 공감이 어복손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어복손전>의 작가는 어복손을 악인으로 형상화했다.<sup>49)</sup> 자신의 속량을 위해 주인과 주인 일가를 죽이고, 주인 딸을 겁탈하고, 그리고 주인 딸을 죽이기까지 하는 사건을 형상화함으로써, 독자에게 어복손을 악인으로 인식하게끔 했다.<sup>50)</sup> ‘악랄한 하인에게 희생 당한 주인’이라는 형상을 보여주면서, 작가는 양반과 하인은 분명히 다르며, 같은 신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46) 『한국구비문학대계』 7-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716-728쪽.

47) 박이문 외, 『현상학』, 고려원, 1992, 114쪽.

48) 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30-31쪽.

49) 작품 서두에서 계향패사라는 화자가 어복손을 ‘교활한 자’로 서술하고 있고, 본문에서 어복손은 ‘천성이 사특하고 교활한 노비’로 서술된다. 한기형·정환국 역주, 위의 책, 281-282쪽.

50) 조상우, 『애국계몽기 한문소설 <魚福孫傳> 연구』, 『국문학논집』 제18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297쪽.

있다.

또한 작가 의식은 작품 내용에 대해 화자가 직접 언급한 부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복손전>은 화자의 작중 개입이 두드러진다. <어복손전>에 직접 드러나는 화자는 3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서술자의 개입이 직접적이고 3중 구조를 이룬다는 것은, 독자를 향한 작가의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복손전>에 등장하는 화자는 계항패사씨(桂巷稗史氏), 청천자(聽泉子), 평왈(評曰) 등인데, 이 화자들은 이야기 내용에 개입하고, 이야기 내용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어복손은 교활하고 주인을 농락한 하인이며, 그가 저지른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언급한다.<sup>51)</sup>

그리고 <어복손전>이 실린 『황성신문(皇城新聞)』은 유생(儒生)을 비롯한 유식층을 주된 독자들로 상정했다.<sup>52)</sup> 또한 <어복손전>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 작품의 독자는 대체로 남성 지식인이고,<sup>53)</sup> 이들 한문 식자층은 보수적이고 사회 제도의 개혁보다는 기존 가치의 유지를 바라는 쪽이었다.<sup>54)</sup> 그래서 작가는 한문 독자층을 대상으로, 악인형 하인을 형상화하여 그에 대한 유교적 악(惡)의 징계를 정당화하고,<sup>55)</sup> 결국에는 신분 제도의 유지를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단공안』에 실린 작품들이 조선조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나 기존 규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와 일치한다.<sup>56)</sup>

요약하자면, <외쪽의 피>와 <자글대 이야기>는 하인의 행복으로 끝나는 이야기이고, <어복손전>은 하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이야기이다. <어복손전>이 ‘하인의 불행’으로 결말 맺어진 이유는, 주인공의 악행, 악인의 파멸을 바라는 독자의 기대 지평, 기존 가치 유지를 바라는 작가

51) 한기형·정환국 역주, 위의 책, 406쪽.

52) 정환국, 앞의 논문, 47쪽.

53) 大谷森繁, 『조선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121쪽.

54) 장덕순,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95, 352쪽.

55)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史的 研究』, 일지사, 1982, 66쪽.

56) 한원영, 『한국신문연재소설의 사적 연구』 1, 푸른사상, 2010, 60쪽.



의식 등이었다.<sup>57)</sup>

### 3) 배경

<자글대 이야기>는 막연한 시공간 속에서 하인과 양반의 대립과 갈등을 보여준다. 시간은 ‘옛날도 옛날’이고 공간은 ‘어느 곳’이다. <외쪽의 피>와 마찬가지로 민담적 시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은 특정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공간은 ‘주인 영감의 집’과 서울 등으로 한정할 수 있다. 주인 영감은 하인인 자글대 어머니를 차지하기 위해, 자글대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제기한다. 만약 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글대 어머니는 주인 영감에게 속하게 된다. 자글대는 어머니를 잃게 되고, 자글대 아버지는 아내를 뺏기게 된다.

자글대 어머니를 뺏기 위해, 주인 영감이 제기한 문제는 네 가지였다. 하루 동안 맨 김 풀 수를 알아내라는 것과, 재로 동아줄 석 자를 꼬아 올리라는 것과, 겨울에 딸기를 구해오라는 것과, 자갈돌로 배 만들기였다. 이러한 과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하지만 자글대는 주인 영감에게 당나귀 발자국 수를 알아내라고 하고, 생철에 벗짚을 태워 재로 동아줄을 만들고, 딸기를 따러 갔다가 독사에게 물렸다고 하고, 자갈배가 떠내려가니 모래 밧줄을 달라고 하면서 과제를 해결한다.

57) <영악한 종의 말로>(『한국구비문학대계』 7-14, 716-728쪽.)는 구비설화인데도 ‘하인의 불행’으로 끝난다. 이는 기존 가치의 유지를 바라는 향유층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말로 볼 수도 있다. ‘기존 가치의 유지’는 민중의 가치관이라기보다는 한문 식자층의 보수적 가치관에 가깝다. 그렇다면 구비설화의 향유층은 민중인데, 왜 한문 식자층의 보수적 가치관이 나타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피쟁이 하인’ 유형 약 60편의 각편 중에서 ‘하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이야기, 즉 ‘기존 가치의 유지’를 드러내는 이야기는 4편에 불과하다.(<상전을 속인 하인>, 『한국구비문학대계』 1-1, 522-533쪽; <왕굴장굴대>, 『한국구비문학대계』 1-9, 468-475쪽; <복수의 복수>, 『한국구비문학대계』 3-2, 22-35쪽; <영악한 종의 말로>) 구비설화 전체로 보면, 56편 정도가 ‘하인의 행복’으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구비설화는 결말이 대체적으로 ‘하인의 행복’으로 끝나고, 이는 사회 제도의 개혁을 바라는 민중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글대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 공간이라기보다는 가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당나귀 밭자국 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김 풀 수를 알 수 없고, 생철에 벗짚을 태워 재로 만든 동아줄처럼 보이게 하고, 겨울에 독사가 없듯이 딸기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주인 영감은 현실 공간에서 과제를 제시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자글대는 가상 공간에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

‘주인 영감 집’이라는 공간에서, 주인은 과제를 부여하고 자글대는 과제를 해결한다. 주인 영감은 현실 공간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과제를 자글대에게 부여하고, 자글대는 가상 공간에서 과제를 해결한다. 마을 안에서 자글대는 주인 좌수 영감보다 불리한 위치이다. 그래서 마을 안은 ‘기존 질서의 유지’를 의미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서울로 가는 중로에서는 과제 부여와 과제 해결의 위치가 바뀐다. 자글대가 어떤 과제를 부여하고 주인 영감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다. 서울로 가는 도중에 자글대는 국수를 사 오면서 벌레가 빠졌다, 콧물이 빠졌다고 하면서 주인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어긴다. 국수에 불순물이 빠져서 자신이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하인이 주인에게 제시한 하나의 과제 부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인은, 국수를 먹지 못하게 하는 하인이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수를 먹기 위해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했다.

국수를 먹고 온 주인 영감은 당나귀가 없어진 사실을 깨닫는다. 자글대가 당나귀를 팔고 고삐만 손에 쥐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자글대가 주인 영감에게 없어진 당나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라는 과제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인 영감이 당나귀가 없어진 이유를 제대로 알아냈다면, 하인 자글대를 혼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인 영감은 당나귀가 없어진 이유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글대가 부여한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인 양반은 하인이 제시한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즉, 마을 바깥에서는 주인과 양반의 대결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가 난 주인 영감은 자글대 등애다 ‘이놈을 당장에 때려 죽여라’는 글을 써서 집으로 돌려 보낸다. 하지만 자글대는 이 사실을 지나가던 스님에게 듣게 되어, 강물에 들어가 씻어버리고, ‘큰 아기 아내삼고, 집을 짓고 세간을 나눠 주어라’고 바꾼다. 주인 영감 집에 돌아온 자글대는 글대로 주인 영감의 딸과 혼인한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 영감은 자글대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글대는 빠져나오고 결국에는 주인 영감 일가를 강물 속에 빠뜨린다. 자글대는 자기 아내만 살려서, 주인 영감의 집을 차지하고 부모님 모시고 재미있게 살게 된다. 좌수 영감은 신분적 권위를 가지고 하인 외쪽이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명령하지만, 자글대는 이를 지혜로 극복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 승리와 패배의 변곡점은 ‘마을 경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마을 안’에서 자글대는 양반에게 승리하는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자글대 이야기>의 배경 역시 <외쪽의 피>와 마찬가지로, ‘마을 안-마을 밖-마을 안’으로 바뀌면서 ‘기존 질서의 유지-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대립-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의미하는 변증법적 공간 전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어복손전>은 <외쪽의 피>나 <자글대 이야기>와 달리 구체적 시공간이 나타난다. 시간은 ‘개국 464~5년경, 철종조 말’로, 공간은 ‘충주 甘勿面 古江村’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배경 묘사가 자세하고, 인물 행위의 사실성을 보조해주기도 한다.<sup>58)</sup> 배경의 중요성이 19세기

58) 베갯머리에서는 외로운 등불만 반짝이고 창밖으론 달빛이 고왔다. 이웃에선 검은 개가 ‘컹컹’ 짖어대고 먼 마을에선 은은한 다듬이 소리만 들리더라. 한기형·정환국 역주, 위의 책, 292-293쪽.

이후에 나타났고, 구체적인 시공간의 표현은 소설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복손전>의 배경은 소설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복손전>의 공간은 ‘마을 안-마을 밖-마을 안’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을 안은 고강촌이고, 마을 밖은 강이나 주막집, 서울, 서울 가는 길[竹山] 등으로 나타난다.

<어복손전>을 하인과 주인의 갈등과 대립으로 본다면, 어복손은 ‘마을 안’에서는 패배하고, ‘마을 밖’에서는 대결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승리와 패배의 변곡점은 ‘마을 경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마을 안’에서 승리한다. 하지만 이 승리는 미완의 승리이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어복손이 주인 오영환에게 속량을 요구하지만 돌아온 것은 매 20대이다. 이후 어복손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게 된다. 마을 안에서 하인 어복손은 양반 오영환에게 패배한다. 기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을 바깥으로 공간을 옮기면서 하인 어복손과 양반 오영환의 대결이 제시된다. 주인의 말을 팔아 치우고, 주인의 냉면을 자신이 먹고, 기생을 이용하여 주인의 금전과 체면에 많은 손상을 입힌다. 회상담을 통해, 수소를 수수로 오해했다며 주인의 돈을 슬쩍 차지하고, 과거 시험 길에 주인 일행의 짐바리를 편취한 사건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에서는 하인과 양반의 위치가 전도되었을 정도로, 하인이 주인을 꺾 못하게 한다. 이처럼 어복손은 기지, 재치, 속임수로 양반 오영환을 농락하지만, 결정적 승리인 ‘속량’을 얻지는 못한다. 속량을 얻지는 못해도 판서 대감과의 친분을 이용해 거의 속량에 이른다.

그렇지만 판서 대감의 귀양으로 속량이 수포로 돌아간다. 어복손의 능력과 저항에 위기감을 느낀 오영환은, 마을로 돌려보내달라는 어복손의 부탁을 들어준다. 마을 안은 양반 오영환의 권세가 제대로 작동하는 기존 질서가 유지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강촌으로 돌아온 하인

어복손은 다시 약자가 된다. 서울에서 돌아온 주인은 어복손을 결박하여 용담에 빠뜨리고자 한다.

그러나 어복손은 마을 경계인 주막에서 탈출한다. 오영환은 어복손 대신 자루에 들어있는 김정팔을 용담에 빠뜨린다. 다시 주인집에 나타난 어복손은 벼슬에 약한 주인을 꼬드겨, 용궁에 가면 자신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주인 일가를 용담에 수장시킨다. 돌아온 마을 안에서 하인 어복손은 양반 오영환에게 승리하여 완벽한 속량을 쟁취하고,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거둔다.

한편 오영환 사후에, 마을을 떠난 어복손은 진산군에 머무르게 되는데, 진산군은 고강촌이라는 공간의 연속, 확대판으로 볼 수 있다. 오영환과 겹쳐지는 인물인 수령에게 어복손은 죽음을 당한다. 마을 안에서 하인 어복손은 다시 양반에게 패배한다.<sup>59)</sup> 기존 질서가 유지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복손전>의 배경 역시 변증법적인 정반합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마을 안에서는 ‘기존 질서의 유지’, 마을 밖에서는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대결’, 다시 마을 안에서는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읽을 수 있다. 다른 두 이야기, <외쪽의 피>와 <자글대 이야기>에서는 하인의 승리로 귀결되는 새로운 질서의 확립으로 결말이 났는데, <어복손전>에서는 하인의 패배로 다시 기존 질서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다. 하지만 변증법에서 정명제(thesis)는 언젠가 다시 모순을 띠고, 시간을 통한 상승 작용을 거쳐 반명제(antithesis)로

59) 이를 소설의 ‘진행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소설의 진행적 성격은 형식적으로는 유동적 균형을 보여주어도, 내용적으로는 완결성을 배제한 상황이다. 즉, 결말에서 하인이 패배하는 처음의 상황으로 회귀하는데, 이는 하인과 주인의 대결이 계속될 것이라는 열린 결말로 볼 수 있고, 내용적 완결성을 배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길은 시작되었는데도 여행은 완결된 형식이 된다. 하인과 주인의 대결은 계속되는데도 소설의 서술은 완결된 형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게오르크 루카치, 반성완 옮김, 『루카치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98, 79-80쪽을 참조할 것.

전환된다.<sup>60)</sup> 따라서 <어복손전>의 결말은 새로운 질서의 확립이라는 합명제(synthesis) 이후에 나타나는 또 다른 정명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의 고찰에 나타난 서사문학적 의의

위에서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 3편의 이야기가 같은 유형-‘피쟁이 하인’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사건 전개 양상과 구성 요소(인물, 사건, 배경)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찰에서 찾을 수 있는 서사문학적 의의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의의는 담론 방식에 따른 화자의 기능 다양화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3편의 이야기는 ‘피쟁이 하인’이라는 공통 제재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각각의 독특한 작품 효과를 얻고 있었다. 피쟁이 하인과 주인공과의 대립이라는 ‘이야기[내용: 무엇일]’를 다양한 ‘담론[형식: 어떻게]’으로 형상화하고 있었다. 독특하고 다양한 인물 형상을 통해 어떤 효과를 전달하고 있었지만, 그 인물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비슷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들의 행동과 기능은 바뀌지 않았다<sup>61)</sup>. 그래서 인물들을 주인공, 적대자, 조력자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즉, 등장인물들이 누구인지보다는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 인물들을 분류했다.

이처럼 3편의 이야기는 ‘피쟁이 하인’이라는 공통 유형을 지니고 있었

60) 새뮤얼 이눅 스텐프·제임스 피저, 이광래 옮김,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열린책들, 2005, 471-472쪽.

61) 블라디미르 프로프,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새문사, 1987, 25쪽.

지만, 그 구체적 표현은 상당히 달랐다. 인물의 이름, 생김새, 사는 지역, 나이, 말투가 달랐고, 사건의 구체적 실현에도 차이가 있었고, 배경의 특성이나 효과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3편의 이야기는 ‘피쟁이 하인’이라는 사건 전개를 기본으로 하되, 그 형식과 표현에서는 작품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사건 전개의 이야기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건을 전달하는 담론 방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특성은 ‘화자의 기능’이 다양화된 것이다. 설화는 話者が 聽者를 대면해서 청자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구연된다.<sup>62)</sup> 그렇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화자가 이야기 내용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 이야기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특성은 설화를 기록화 한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에서도 나타난다. 구비설화가 기록문학으로 바뀌었지만, 화자의 목소리가 텍스트에 직접 나타나는 구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외쪽의 피>에서는 화자의 목소리가 세 편 중 가장 약하게 드러난다. <외쪽의 피>에서 화자는 거의 내용 전달에 치중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요약하는 정도이다.<sup>63)</sup> <자글대 이야기>에서는 화자의 목소리가 10여회 정도 나타난다. 이야기 중간에 화자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sup>64)</sup> 이야기 내용에 대한 평가나 화자의 생각을 독자에게 직접 밝히고 동의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sup>65)</sup> 그리고 마지막 부분

62)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5, 16쪽.

63) “이와 같이 외쪽을 학대하던 주인 양반은, 도리어 외쪽의 흉계에 빠져서 온 집안 식구가 물귀신이 되어 버리고, 딸까지 빼앗겼습니다.” 신원기, 『조선동화대집과 설화교육』, 보고사, 2017, 305쪽.

64) “그러나 자글대-이 애의 이름입니다-는 그냥 자꾸 말해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박영만, 권혁래 옮김, 『조선전래동화집』, 한국국학진흥원, 2006, 393쪽.

65) “‘또 별 수가 있습니까?’, ‘참 딱한 일입니다. 글썄 말입니다. 산에는 눈이 하얗게 덮혔는데, 딸기가 다 뭐니까?’, ‘그러니까, 좌수 영감이 이것을 또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일도.’, ‘글을 배우지 못한 자글대가 이것을 알 수가 있을 리 있겠습니까? 설령 또 자글대가 글을 안다기로 제 등에다 쓴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었어요?’, ‘강물에 집어넣은 자글대 놈이 죽지 않고 살아

에서 이야기를 요약하기도 한다.<sup>66)</sup>

두 이야기에 비해, <어복손전>은 화자의 목소리가 강하게 드러나고, 화자의 개입이 이야기 진행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어복손전>에서 화자는 4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 우선 ‘桂巷稗史氏’라는 화자가 4회 드러난다.<sup>67)</sup> 두 번째로 ‘聽泉子’라는 화자가 11회 나타난다.<sup>68)</sup> 화자 계항패사씨는 하인이나 어복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유지하지만, 청천자는 ‘사람으로 누구는 상등이 되고 누구는 하등이 되는 것도 자연의 이치란 말인가?’라고 하며, 하인 어복손을 두둔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한다.<sup>69)</sup> 세 번째 ‘評曰...’이라고 해서 본문에 짧은 설명이나 비평을 가하는 부분도 여러 번 나타난다. 그리고 이야기 속 서술자인 화자가 있는데, 전지적 서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sup>70)</sup> 이는 계항패사씨, 청천자, 평왈 등에서 이야기 내용에 대한 개입과 평가를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sup>71)</sup>

왔으니까, 오죽이나 놀랐겠습니까?” 박영만, 위의 책, 394-404쪽.

66) “자글대는 부모님 모시고 재미있게 살았더랍니다.” 박영만, 위의 책, 405쪽.

67) 한기형·정환국 역주, 『역주 신단공안』, 창비, 2007, 281쪽, 331쪽, 362쪽, 401쪽. 331쪽에 있는 계항패사씨의 서술을 대충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계항패사는 말한다. ‘너에게 나온 것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가는 법이다. 객이 옛 정의를 망각하고 친구에게 욕을 주자 복손이 등급을 망각하고 패덕하게 멋대로 주먹을 휘둘렀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그림자보다 빨리 나타나는 법이다.’

68) 한기형·정환국 역주, 『역주 신단공안』, 창비, 2007, 282쪽, 296쪽, 309쪽, 311쪽, 329쪽, 334쪽, 343쪽, 348쪽, 383쪽, 403쪽, 406쪽.

69) 이어지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시경』에도 ‘사람만 보고 그의 말을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니, 독자도 이 부분을 그냥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한기형·정환국 역주, 위의 책, 348-349쪽.

70) 서술자의 개입이 다음과 같이 1회 나타난다. “독자가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르러 ‘물고기가 비구름을 만나 하늘로 날아 오르겠다’고 말할 법도 하지만, 아무리 ‘때때로 바람이 등왕각(滕王閣)으로 실어다 주고, 우레가 천복비(薦福碑)에 울린다’는 걸 안다고 해도, 이 재상이 태산이 아니고 그저 빙산(氷山)이라 해가 한 번 떠오르면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한기형·정환국 역주, 위의 책, 384쪽.

71) ‘桂巷稗史氏’와 ‘聽泉子’는 <어복손전>뿐 아니라, 『神斷公案』의 작품 7편에 모두 등장한다. 그리고 이를 ‘작자가 개입하여 설명 비평을 가하는 舊小說의 수법’으



이렇게 본다면, ‘피쟁이 하인’ 유형이 <어복손전>,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로 기록화 되면서, 화자의 기능이 다양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외쪽의 피>에서는 화자의 목소리가 가장 약하고, <자글대 이야기>에서는 약간 강하고, <어복손전>에서는 화자의 목소리 및 기능이 아주 강하고 중층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화자의 목소리가 강한 것은 청자를 지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sup>72)</sup> 세 이야기 중에서 <어복손전>이 독자를 향한 능동적·명령적 기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의의는 윤리적 가치 변화에 따른 주제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 <어복손전> 3편의 이야기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말 부분이었다. <외쪽의 피>와 <자글대 이야기>는 ‘하인의 행복’으로 끝나는데 반해, <어복손전>은 ‘하인의 불행’으로 끝나고 있었다. 3편 모두 ‘피쟁이 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말이 달랐다. 오히려 ‘피쟁이’로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어복손이었고, 상전에 대한 노복의 반감을 아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는 인물도 어복손이었다.<sup>73)</sup> 사건 전개나 논리로 따지면, 가장 큰 행복을 얻어야 할 하인은 어복손이다. 그러나 어복손은 가장 ‘피쟁이 하인’다운 형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상이 탄로 나서 처단되는 운명을 맞이한다.

<외쪽의 피>와 <자글대 이야기>가 독자들의 기대 지평을 만족시키

---

로 보기도 하고, ‘실재성을 강조하여 더욱 현실감을 돋우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史的 研究』, 일지사, 1982, 66쪽, 85쪽 참조.) 『신단공안』 전편에 ‘계항패사씨’와 ‘청천자’가 등장하기에, 이를 <어복손전>만의 특성으로는 볼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6편의 작품에 비해, <어복손전>에서 ‘계항패사씨’와 ‘청천자’가 많이 등장하고(15회), 주장도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작중 화자 ‘계항패사씨’와 ‘청천자’의 작품 내용 및 진행에 대한 개입은 <어복손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72) 로만 야콥슨,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97, 54-61쪽.

7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2006, 358쪽.

는 이유는, 하인이 선인(善人)이므로 선인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4)</sup> <어복손전>이 독자들의 기대 지평을 만족시키는 이유는, 하인이 악인(惡人)이므로 악인은 패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 유형으로 보면, 같은 ‘피쟁이 하인’인데, 한쪽은 ‘하인-선인-승리’로 형상화되고, 한쪽은 ‘하인-악인-패배’로 형상화된다. 이는 당대의 향유층이 한쪽은 ‘하인-선인-승리’를 원했고, 한쪽은 ‘하인-악인-패배’를 원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어떤 인물에 대한 판단과 작품의 주제 의식은 작자의 일방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당대 향유층의 사고 방식과 사회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인의 형상을 선인과 악인으로 달리 본 것은, 당대 사회 의식이 하인을 선인과 악인으로 상반되게 인식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란 것은 주관과 대상 사이에 맺어지는 일종의 상관관계이기에,<sup>75)</sup> 당대 상황에 따라 주체인 향유층의 가치는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인물이나 주제를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문학의 윤리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리적 가치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에 대한 판단을 독자가 느끼게 하는 가치이다.<sup>76)</sup> <어복손전>은 1906년에 출간되었고, <외쪽의 피>는 1926년에, <자글대 이야기>는 1940년에 출간되었다. 그렇다면 1906년 한문 향유층의 윤리적 가치는 ‘하인-악인’이고, 1926년~1940년 한글 향유층의 윤리적 가치는 ‘하인-선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대 향유층의 하인에 대한 윤리적 가치가 달랐기에, ‘피쟁이 하인’이라는 같은 유형의 이야기를, 한쪽에서는 ‘하인-악인-패배’로 형상화했고, 한쪽에서는 ‘하인-선인-승리’로 형상화했

74) 두 이야기를 향유한 전승 집단이 하인의 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공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대숙,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299쪽을 참조할 것.

75) 우리말사상연구소 엮음, 『우리말 철학사전』 4, 지식산업사, 2005, 28쪽.

76) ① 구인환 외, 『문학개론』, 삼영사, 2002, 107-108쪽. ② 박이문, 『사유의 열쇠』, 산처럼, 2004, 334-337쪽.

다고 볼 수 있다.

덧붙이자면 ‘하인-악인-패배’의 가치관은 기존 신분적 질서의 유지를 바라는 쪽이었고, ‘하인-선인-승리’의 가치관은 기존 신분적 질서의 해체 또는 새로운 신분적 질서의 확립을 바라는 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상반된 윤리적 가치가 나타난 것은 이 시기의 시대적 특성과도 통하고 있다. 1906년~1940년 기간은 개화기, 근대이행기, 근대문학 1기 등으로 지칭된다.<sup>77)</sup> 이 시기는 과거의 유산을 수정 개조하려는 진보주의자들과 그것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 변화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려는 보수주의자들의 대립을 그 특징으로 한다.<sup>78)</sup> 즉, 이 시기의 특성은 한마디로 혼돈과 모색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분제 역시 혼돈과 모색의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어복손전>(1906년), <외쪽의 피>(1926년), <자글대 이야기>(1940년)는 신분적 질서의 유지와 해체를 통한 신분제의 혼돈과 모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의의는 차연(差延)의 실현과 해석의 다양성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어복손전>, <외쪽의 피>, <자글대 이야기> 3편의 이야기가 기록화 되면서 나타난 두 가지 의의를 살폈다. 담론 방식에 따른 화자의 기능 다양화, 윤리적 가치의 변화에 따른 주제의 변화 등의 특성이 있었다. 이는 ‘피쟁이 하인’이라는 구비설화가 <어복손전>(1906년), <외쪽의 피>(1926년), <자글대 이야기>(1940년)로 기록화 되면서 나타난 특징이다. 그렇다면 구비문학의 기록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왜 ‘피쟁이 하인’이라는 구비설화는 기록의 과정을 거치면서 화자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주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구비문학은 기록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 구연 과정에서 다양한

77) 장덕순,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95, 349쪽.

78)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0, 69쪽.

각편(各篇)들을 생산한다. 이는 구비문학의 일반적 특성이기도 하다.<sup>79)</sup> 또한 설화나 판소리가 소설로 기록화 되면서 많은 이본(異本)들이 생산되기도 한다. 각편과 이본의 생산은 구연과 기록화 과정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변주가 일어나는 것은 고정된 의미가 없다는 데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텍스트에 고정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연할 때마다, 기록화 될 때마다, 각편마다 이본마다, 나름의 의미나 주제가 생산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텍스트에 고정된 의미가 없이, 확실한 의미를 남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의미가 미끄러지고 차이를 내며 계속해서 연기(延期)되는 것이다.

어떤 기표(記標, signifiant)가 고정된 기의(記意, signifié) 없이 그 의미가 차이를 내며 연기되는 것, 이것을 차연(差延)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sup>80)</sup> 데리다가 언급한 차연은 ‘다르게 하다’와 ‘지연시키다’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공간적 개념인 ‘차이’는 언어와 그것이 재현하려는 것과의 숙명적인 차이를, 그리고 시간적 개념인 ‘지연’은 언어가 재현하려는 현존의 끝없는 유보를 의미한다.<sup>81)</sup> 즉, 의미는 어떤 하나의 기호에 완전히 현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전과 부재간의 일종의 끊임없는 교차라 할 수 있다.<sup>82)</sup> 일정한 텍스트가 문자로 고정되어도 그 의미는 차연되지만, 고정되지 않은 구비 텍스트의 경우에 그 의미의 차연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비설화는 구연의 과정이든 기록화의 과정이든, 그 의미를 계속해서 확대, 심화, 재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79)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5, 5쪽.

80) ①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7, 78쪽. ② 김보현, 『데리다 입문』, 문예출판사, 2011, 121-122쪽.

81) 윤호병 외, 『후기 구조주의』, 고려원, 1992, 20-21쪽.

82) 마단 사렵 외, 임현규 편역,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5, 20쪽.

이러한 의미의 차연을 통해, ‘피쟁이 하인’은 다양한 의미망과 해석 가능성을 배태하게 된다. 고정된 의미 없이, 의미의 차이와 연기와 미끄러짐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작품은 지각의 대상이 아니라 의미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의미의 해독을 요청하며 그 요청에 응할 때 해석의 작업이 시작된다.<sup>83)</sup>

따라서 ‘피쟁이 하인’이라는 이야기가, 기록화 과정을 통해서 화자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주제의 변화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차연(差延)의 실현과 해석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6. 맺으면서

본고의 목적은 『조선동화대집』(1926년)의 <외쪽의 피>를 중심으로 전·후 시기의 ‘피쟁이 하인’ 이야기-『신단공안(神斷公案)』(1906년)의 <어복손전(魚福孫傳)>, 『조선전래동화집(朝鮮傳來童話集)』(1940년)의 <자글대 이야기>를 대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외쪽의 피>의 전개 양상과 구성 요소(인물, 사건, 배경)를 살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복손전>과 <자글대 이야기>의 전개 양상과 구성 요소를 비교해 보았다.

<외쪽의 피>의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았는데, <자글대 이야기>도 동일한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 I. 주인이 하인을 학대하다.
- II. 하인이 주인을 속이다.
- III. 주인이 하인을 죽이려고 하다.
- IV. 하인이 죽을 위기를 벗어나다.

---

83)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지성사, 1998, 88쪽.

## V. 하인이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딸과 살다.

<어복손전>은 I~IV까지의 전개 양상은 ‘문제 제기-문제 해결’ 양식의 비슷한 전개를 보였지만, 결말 부분이 ‘V. 하인이 주인과 딸을 죽이지만, 죄상이 밝혀져 자신도 처단되다.’로 나타나 두 이야기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결말 부분이 앞의 두 이야기와 다른 이유는 주인공의 악행, 악인의 파멸을 바라는 독자의 기대 지평, 기존 가치 유지를 바라는 작가 의식 등이었다.

인물 형상을 살핀 결과,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달랐지만, 주인공(하인), 적대자(양반), 조력자, 희생자 등으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는 세 편의 이야기를 특정한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방증이 되었다. 아울러 ‘자글대, 앙글장글대, 왕글장글대’ 등의 명칭을 ‘앙글대다’, ‘자글대다’에서 유추하여, ‘뭔가를 속이면서 누군가를 성가시게 하는 피쟁이’를 뜻한다고 추정해 보았다.

배경을 살핀 결과, 세 이야기 모두 변증법적 공간 전개를 통해, 신분 질서의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마을 안-마을 밖-마을 안’으로 공간이 전개되면서, 그 의미는 ‘기존 질서의 유지-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대립-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나타냈는데, 이는 정명제-반명제-합명제로 볼 수 있었다.

세 편 이야기의 전개 양상과 인물, 사건, 배경을 대비적으로 살핀 결과, 담론 방식에 따른 화자의 기능 다양화, 윤리적 가치 변화에 따른 주제의 변화, 차연(差延)의 실현과 해석의 다양성 등을 서사문학적 의의로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의의는 이야기(story)와 담론(discourse) 차원을 바탕으로 하여 살핀 결과였다.

본고의 고찰을 통해, 구비 전승의 기록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추측할 수 있었고, 일정한 유형의 이야기가 통시적으로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알 수 있었다. 구비문학의 기록화 과정과 스토리텔

링의 관계,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상호텍스트성 문제, 채록이나 구연 과정의 텍스트화(entextualization)와 컨텍스트화(contextualization) 문제<sup>84)</sup> 등에 대한 접근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84) 곽진석, <민담론>, 김승찬 외, 『한국구비문학론』, 새문사, 2003, 90쪽.

## 참고문헌

- 『한국구비문학대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구비문학대계』 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7-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강영계, 『헤겔 절대정신과 변증법 비판』, 철학과현실사, 2004.  
곽진석, 『韓國民俗文學形態論』, 월인, 2000.  
구인환 외, 『문학개론』, 삼영사, 200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000.  
권영민, 『풍자 우화 그리고 계몽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김대숙,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김보현, 『데리다 입문』, 문예출판사, 2011.  
김승찬 외, 『한국구비문학론』, 새문사, 2003.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0.  
김정인 외, 강응천 편저, 『19세기 인민의 탄생』, 민음사, 2015.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7.  
\_\_\_\_\_,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박영만 지음, 권혁래 옮김, 『조선전래동화집』, 한국국학진흥원, 2006.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지성사, 1998.  
\_\_\_\_\_, 『사유의 열쇠』, 산처림, 2004.  
박이문 외, 『현상학』, 고려원, 1992.  
박혜숙, 『소설의 등장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史的 研究』, 일지사, 1982.



- 송민호 외, 『개화기문학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4.
-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 신연우, 「‘상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한국민속학』 제37집, 한국민속학회, 2003, 109-128쪽.
- 신원기, 『조선동화대집과 설화교육』, 보고서, 2017.
- 안광복, 『청소년을 위한 철학자 이야기』, 신원문화사, 2005.
- 우리말사상연구소 엮음, 『우리말 철학사전』 4, 지식산업사, 2005.
- 윤호병 외, 『후기 구조주의』, 고려원, 1992.
- 이상섭, 『문학비평 용어 사전』, 민음사, 2001.
- 이성실, 『왕굴장굴대』, 교원, 2001.
- 이재선, 『한국개화기소설연구』, 일조각, 1997.
- 이현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 장덕순,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95.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5.
- 정준식, 「『피쟁이 하인 설화』의 형성과정과 전승양상」, 『문화콘텐츠연구』 제11집,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2005, 395-423쪽.
- 정환국, 『『神斷公案』 제7화 <魚福孫傳>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2006.
- 조상우, 「애국계몽기 한문소설 <魚福孫傳> 연구」, 『국문학논집』 제18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287-313쪽.
-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5.
- 한기형·정환국 역주, 『역주 신단공안』, 창비, 2007.
-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2002.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17.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한원영, 『한국신문연재소설의 사적 연구』 1, 푸른사상, 2010.

大谷森繁, 『조선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옮김, 『루카치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98.

로만 야콥슨, 신문수 편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97.

마단 사렙 외, 임현규 편역, 『데리다와 푸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5.

블라디미르 프로프,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새문사, 1987.

새뮤얼 이녹 스템프·제임스 피저, 이광래 옮김, 『소크라테스에서 포스  
트모더니즘까지』, 열린책들, 2005.

M.H. 아브람스, 최상규 옮김, 『문학용어사전』, 보성출판사, 1998.

제럴드 프린스, 이기우·김용재 옮김, 『서사론사전』, 민지사, 1992.

S. 채트먼,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고려원, 1991.

하이스, 황문수 옮김,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서문당, 1996.

<https://gongu.copyright.or.kr>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Oezzok's Tricks> in  
*Joseon Donghwa Daegip(A Great Anthology  
of Korean Fairy Tale)*

- Focusing on the related aspects of <Jageuldae story> and  
<Biography of Eobokson> -

Shin, Won-Gie\*

This study consider comparatively that three pieces 'tricky servant':  
<Oezzok's Tricks> in *A Great Anthology of Korean Fairy Tale(1926)*,  
<Biography of Eobokson> in *The trial reports as like god's  
decision(1906)*, <Jageuldae story> in *Anthology of Korean Traditional  
Fairy Tale(1940)*.

The development aspects of <Oezzok's Tricks> are as follows,  
<Jageuldae story> is same.

- I. A master abuses a servant.
- II. A servant deceives a master.
- III. A master wants to kill a servant.
- IV. A servant passes the crisis of death.
- V. A servant kills a master, and lives master's daughter.

<Biography of Eobokson>'s development aspects from I to IV, it is

---

\* Dong Cheon High School.

same other two story as style of ‘problem posing–problem solving’. But ending is different: V. A servant kills a master, but he is punished after the crime had been revealed. The reasons of different ending are protagonist’s misdeed, reader’s horizon of expectations to wish ruin of a bad man, and author consciousness to wish maintenance of existing value.

As a result of examining character’s aspects, it represents same function: protagonists, antagonists, helpers and victims. This is evidence that can bind three pieces to specific types.

As a result of researching settings, all three pieces represent changing aspects of status order through the dialectical space development. Its meaning is ‘a maintenance of existing order—a conflict between existing order and new order—an establishment of new order’.

Considering comparatively development aspects, characters, events and settings of three pieces, we can find out significance of narrative literature: diversification of the speaker that depends on discourse ways, change of subject that depends on alteration in ethical value, and realization of Différance and diversity of interpretation.

Key Words: <Oezzok’s Tricks>, <Biography of Eobokson>, <Jageuldae story>, Dialectical space development, Diversification of the speaker, Change of subject, Realization of Différance.

■ 논문접수 : 2018년 6월 28일

■ 심사완료 : 2018년 8월 4일

■ 게재 확정 : 2018년 8월 17일